

# Zola 생운 13~21년 ebs 수특 주제별 모음

-13년~21년까지 ebs 수특 몽땅+다른 것 조금 추가



# 1단원

## 윤리학의 분류(수특 1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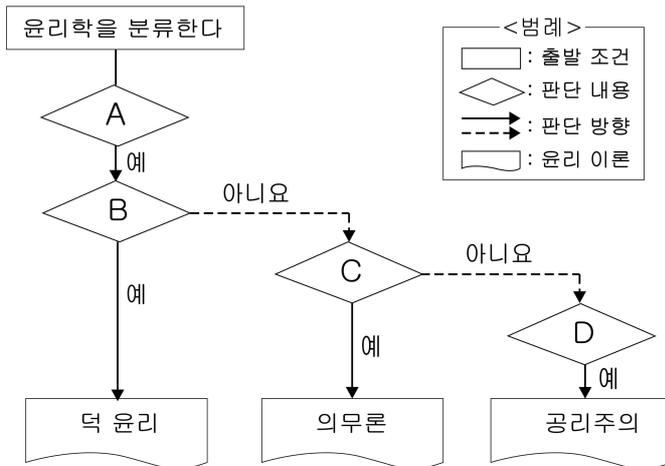
1)[12-11-고2]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가)	윤리학의 여러 분야가 제시하는 도덕 판단의 정당화 방법을 적용하여 생활 속에서 논쟁이 되는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나)	순수한 지식의 체계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통해 현실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토대를 제공한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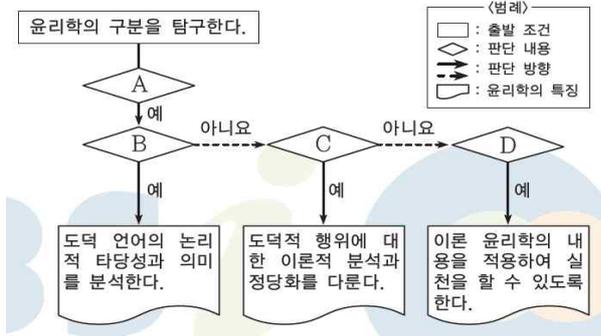
- ㄱ. (가)는 생명, 정보, 환경, 사회 정의 등의 문제를 다룬다.
- ㄴ. (나)는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는 규범의 탐구를 중시한다.
- ㄷ. (나)는 (가)보다 실천적 영역의 도덕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 ㄹ. (가), (나)는 모두 도덕적인 행위의 옳음과 그름을 다룬다.

2)[15-6-고2] 그림의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 ① A: 윤리적 행위에 대한 정당화 여부를 다루는가?
- ② A: 도덕적 관습에 대한 단순한 묘사를 중시하는가?
- ③ B: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보는가?
- ④ C: 도덕적 언어의 논리와 의미 분석에 치중하는가?
- ⑤ D: 정언 명령에 따르는 행위의 실천을 중시하는가?

3)[16 ebs 수특] 그림의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 ① A: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인가?
- ② A: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규범과 원칙을 연구해야 하는가?
- ③ B: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윤리학의 주된 탐구 과제인가?
- ④ C: 일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윤리학의 주된 탐구 과제인가?
- ⑤ D: 현실 문제의 해결보다 도덕 원칙을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가?

4)[18 ebs 수특]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윤리학은 도덕 문제의 실천적 해결을 핵심 과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해야 할지 갈등하는 상황에서 도덕 이론을 적용하여 윤리적으로 타당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을: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룸으로써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판단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의 윤리 이론이 필요하며, 윤리학은 이에 대한 탐구에 주력해야 합니다.

병: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명제의 논리적 타당성 분석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라, 안락사를 선이나 악으로 규정할 때 선과 악의 의미는 무엇인지, 판단 논리에 모순이 없는지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보기>

- ㄱ. 갑은 각 사회의 도덕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윤리학의 목표로 삼는다.
- ㄴ. 을은 윤리학이 사람들이 따라야 할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 ㄷ. 갑, 을은 병과 달리 윤리학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당위의 학문이어야 한다고 본다.
- ㄹ. 병은 을과 달리 윤리학은 이론의 정립보다 현실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5)[17-6]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도덕 언어의 논리적 명료화에 주력하는 새로운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당시 윤리학은 도덕 판단이 단지 감정의 표현이나 명령일 뿐이므로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② 도덕적 추론에 대한 가치중립적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 ③ 도덕적 풍습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④ 도덕 언어의 분석보다 도덕 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⑤ 도덕적 지식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하였다

6) [19 ebs 수특]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자연 현상을 다루는 자연 과학과는 학문적 성격이 다르다. 윤리학은 존재나 사실에 기초해서 성립된 학문이 아니라 당위에 기초해 성립된 학문이다. 따라서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행위 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인간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인 규범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 좋음', '옳음'과 같은 윤리학적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윤리학은  ㉠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당위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객관적 탐구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② 윤리학 자체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한다
- ③ 도덕적 현상을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④ 특정한 사회의 도덕적 풍습이나 관습을 기술하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한다
- ⑤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7) [20 ebs 수특] 같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갑: 우리는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면서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을: 우리는 "인생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윤리학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면서 인간의 삶을 안내하고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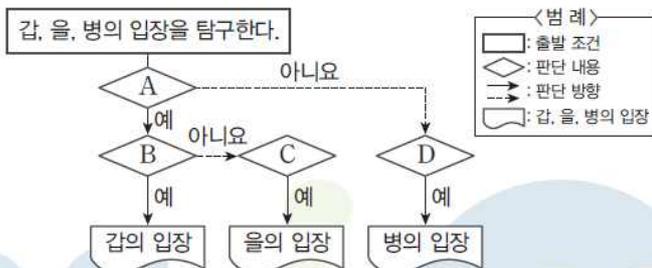
- ① 윤리학은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하는가?
- ② 윤리학은 행위나 행위자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가?
- ③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개념 분석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 ④ 윤리학은 경험에 근거하여 도덕적 관행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 ⑤ 윤리학은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8)[19 ebs 수특] 아래 두 문제를 푸시오.

[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 윤리학은 공리주의 윤리, 의무론적 윤리와 같이 어떤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본질로 삼아야 한다.  
 을: 윤리학은 정보 윤리, 환경 윤리, 생명 윤리와 같이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병: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이나 풍습과 같은 도덕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3 갑, 을, 병의 입장을 아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기술보다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데 힘써야 하는가?
- ㄴ. B: 윤리학은 다양한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절한 도덕 이론을 활용해야 하는가?
- ㄷ. C: 윤리학은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접 학문과 연계해야 하는가?
- ㄹ. D: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 추론의 타당성 검증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 갑, 을, 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판 방향	비판 내용
①	갑이 을에게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 과학적 탐구를 윤리학의 본질로 삼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②	을이 갑에게	윤리학은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구체적 도덕 문제 해결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을이 병에게	사회 집단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병이 갑에게	윤리학은 행위자가 지녀야 할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병이 을에게	윤리학은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으로 표현할

(가)	<p>갑: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p> <p>을: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p> <p>병: 윤리학은 한 사회의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히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lt;범례&gt;</p> <p>→: 비판의 방향</p> <p>A~F: 비판의 내용</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lt;예시&gt;</p> <p>갑 → A → 을</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 ① B: 윤리학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C: 윤리학은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D: 윤리학은 사회의 도덕적 관습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데 주력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A, F: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적 규범 제시에 주력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C, E: 윤리학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도덕규범을 탐구하는 데 주력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도덕에 관한 과학적 연구(㉠ ○○ 윤리학): 개인의 도덕적 경험과 사회의 도덕률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도덕적 생활에 대한 기술과 설명이다.
- ㉡ 도덕에 관한 철학적 연구
  1. ㉡ □□ 윤리학: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도덕규범의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와 그런 규범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2. ㉡ △△ 윤리학
    - (1) 개념 분석: 도덕적 담화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에 대한 의미론적인 연구이다.
    - (2) 도덕적 추리의 논리에 대한 분석: 도덕 판단이 참 또는 거짓으로서 입증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러한 방법이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이다.

- ① ㉠은 윤리학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 ② ㉡은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윤리학의 학문 성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 ③ ㉢은 현실 윤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을 제시한다.
- ④ ㉠, ㉡은 도덕 법칙이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
- ⑤ ㉣은 ㉢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윤리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동양 윤리(자연관+인간관)(수특 2+11강)

11)[20 ebs 수특] (가), (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거늘, 그들을 잡아서 먹거나 해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다. 모든 땅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온기와 존재는 다 나의 본래 몸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남김없이 실현하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에 개의치 않고 다만 자신의 몸을 닦아서 명(命)을 기다리는 것이 명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다.

- ① (가)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강조한다.
- ② (가)는 세계의 모든 존재들의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 ③ (나)는 인간이 하늘을 본받아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강조한다.
- ④ (나)는 자연이 무목적의 질서를 담고 있는 무위(無爲)의 체계임을 주장한다.
- ⑤ (가), (나)는 인간과 자연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한다.

12)[15 ebs 수특]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 세 개의 갈대가 빈 땅에 서려고 할 때 서로서로 의지하여야 서게 될 수 있다. 만일 그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지 못하고 만일 둘을 버려도 하나는 또한 서지 못하여, 의지하여야만 서게 되는 것이다.
-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滅)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한다. 무명(無明)으로 인해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생기고,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멸한다.

< 보 기 >

- ㄱ. 세상 모든 존재는 각각 개별적인 실체임을 인정해야 하는가?
- 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가?
- ㄷ. 상호 의존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가?
- ㄹ. 만물의 불변함을 깨달아 초월적 무(無)의 세계를 추구해야 하는가?

13)[18 ebs 수특] (가), (나), (다) 사상의 자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모든 것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모두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 (나)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한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다)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한다. 그러므로 천지(天地)에 가득 찬 기운은 나의 몸이요, 천지를 운용하는 원리는 나의 본성이 된다.

- ① (가)는 자연을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파악한다.
- ② (나)는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生滅)한다고 주장한다.
- ③ (다)는 자연을 유용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본다.
- ④ (가), (나)는 (다)와 달리 인간이 주인 의식을 지니고 자연을 대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

14)[14 ebs 수특 활용, 주관식]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1개~모두)

(가) 큰 도[大道]가 사라지니 인의(仁義)가 생기고, 지혜가 발달하니 크나큰 허위가 생겨났다.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孝)와 같은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혼란에 빠지자 충신(忠臣)이 나타났다.

(나)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무한하지만,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서 지구상의 모든 자연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 스스로 지니고 있는 자정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자연환경도 황폐화되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다.

<보기>

- ㄱ.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 ㄴ. 자연에 도덕적 원리가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 ㄷ. 자연을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물질 세계로 이해해야 한다.
- ㄹ. 자연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임을 알아야 한다.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

비구들이여,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行]이,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앎(알음)이[識]가, 알음(알이)를 조건으로 정신·물질[名色]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六入]가,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觸]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受]이,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愛]가,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取]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有]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生]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죽음과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苦蘊]가 발생한다.

- ① 탐욕에서 벗어나야 불성(佛性)을 형성할 수 있는가?
- ② 무명(無明)에 도달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③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는가?
- ④ 절대적 존재자에게 의지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 ⑤ 모든 존재의 독립적 실체를 깨달아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가?

16)[21 ebs 수특, 주관식] 푸는 법 알지?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른다면 선하게 될 수 있으니, 이것이 내가 말하는 바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을: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본성을 버리고 각기 제 마음만을 따르며 서로의 마음속을 엿보아 천하를 안정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뒤에 문화 따위 장식을 달고 학문 같은 박식(博識)을 덧붙였으나 그런 장식은 소박한 본질을 잃게 하고 박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나)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범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 【 보기 】
- ㄱ. A: 인간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 ㄴ. B: 선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가?
  - ㄷ. B: 백성이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 ㄹ. C: 도(道)와 일치되는 삶을 통해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해야 하는가?

(가), (나) 사상의 입장에서 <사례>의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것은?

(가) 인간은 하늘의 도(道)를 본받아, 다른 인간과 존재를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인(仁)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 인간은 인간의 의지나 욕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례〉  
 ○○지역 △△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A는 중장비를 동원하여 △△산을 대규모로 깎아 내고 거대한 오락 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 ① (가): 인간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지향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 ② (가): 인간은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 ③ (나):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 없는 무질서의 체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 ④ (나):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 ⑤ (가), (나): 인간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18)[21 ebs 수특]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지식은 인간이 자연을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하다.  
을: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고, 이것이 멀하기 때문에 그것이 멀한다.  
병: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모든 것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모두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 ① 갑은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얻는 지식을 통해 인간의 힘이 생겨난다고 본다.
- ② 을은 이 세상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
- ③ 병은 인간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 ④ 갑은 을, 병과 달리 인간이 과학적 지식을 통해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고 본다.
- ⑤ 을은 갑, 병과 달리 자연을 인류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서양 윤리의 접근 - 문제편(ebs 모음)

19)[20 ebs 수록]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질문에 모두 옳게 대답한 것은?

갑: 쾌락과 고통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강력성, 지속성, 확실성, 원근성이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의 가치가 그것을 낳는 행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산성과 순수성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범위, 즉 쾌락과 고통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질문	대답	
		갑	을
①	쾌락을 주는 행위는 선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악한가?	예	예
②	도덕적 행위의 실천과 사회적 행복의 실현은 양립 가능한가?	예	아니요
③	행위를 평가할 때는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④	도덕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요	예
⑤	쾌락을 계산할 때는 쾌락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20)[19 ebs 수록, 주관식]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갑: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다. 아울러 쾌락과 고통은 양적으로 계산 가능하며,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을: 우리의 규칙은 공리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규칙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즉 개별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규칙의 준수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그 규칙의 옳고 그름은 그것의 준수가 궁극적인 목적을 증진시키는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병: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보기 】

ㄱ. 갑은 병과 달리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ㄴ. 을은 갑과 달리 개별 행위의 유용성보다 규칙의 유용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ㄷ. 병은 갑과 달리 모든 인간을 본래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ㄹ. 갑, 을, 병은 공리성에 근거해 도덕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1)[19 ebs 수특, 객관식 같은 주관식] 학생 골라.

- 행위를 못하게 막는 공포가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가 바로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며, 우리가 뜻하는 공포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 또한 책임의 대상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지 인간만이 생명을 위하여, 즉 그들의 자기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예외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도덕 철학은 미래의 공포보다는 희망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	√
현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 기술의 발전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		√		√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존재는 책임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		√	√
인류의 존속을 위해 현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해 비호혜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			√	√	√	

22)[20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갑: 도덕적 삶의 본질적인 핵심은 '우리가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즉 도덕적 개인은 무조건 규칙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훌륭한 개인,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인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가) 을: 지성, 기지, 판단력, 그리고 용기, 결단력, 끈기 같은 기질상의 속성들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품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택하지 못하면 악하거나 해로울 수도 있다.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은 일 자체로 선택한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범례〉

- : 출발 조건
-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 사상가의 입장

```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A -- 아니요 --> C{C}
      B -- 예 --> Ja[갑의 입장]
      C -- 예 --> Je[을의 입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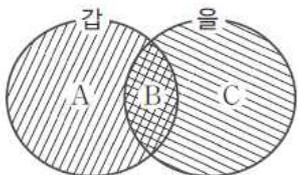
- ① A: 도덕은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가?
- ② B: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위인가?
- ③ B: 바람직한 행위는 선한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어야 하는가?
- ④ C: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인가?
- ⑤ C: 도덕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인가?

23)[19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성은 상호 무관심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의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여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성장이 이루어지는 때는 그들이 이 두 가지 입장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권리와 책임의 화합을 추구할 때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도덕적 원리는 경쟁하는 주장들 간, 곧 너와 나, 당신과 제3자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원리이다. 주장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직 하나의 원리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의의 원리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고 생각한다.

- 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책임보다 개인의 권리 보장이 중요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② 어떠한 갈등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도덕 원리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③ 도덕 문제가 발생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행동해야 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개인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이성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이 중요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⑤ 남성 중심적 정의 윤리와 여성 중심적 배려 윤리가 조화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24)[19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

(가)	<p>갑: 인간의 선뿐만 아니라 인간 외적인 사물의 선을 탐구해야 하며, 즉 목적 자체의 인정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확장해야 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한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p> <p>을: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는 모두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단순히 이런저런 의지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성적인 존재는 모두 자신에게 하는 행위든, 다른 이성적인 존재에게 하는 행위든 모든 행위에서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도 생각되어야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p>&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 보기 】

ㄱ. A: 자연과 인간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ㄴ. B: 인간이 따라야 할 정언 명법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ㄷ. B: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ㄹ. C: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예견해 도덕적으로 행위 해야 한다.

25)[20 ebs 수특]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윤리학은 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신경 과학 분야의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도덕적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약물을 통해 도덕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나) 윤리학은 진화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타적 행동 및 성품과 관련된 도덕성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결과이다. 인간은 자기 생존과 번식 혹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타적 행위를 한다.

- ① (가)는 뇌를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여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나)는 도덕적 행위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적응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본다.
- ④ (나)는 과학이 도덕성 형성 과정이 아닌 도덕적 삶의 방향을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윤리적 행위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이 있다고 본다.

26)[18 ebs 수특]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도덕적 행위란 종(種)이 진화하는 동안 인간이 따르는 법칙에 대한 적응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당위로서의 도덕규범에 대한 경험을 통해 반성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p>	<p>인간의 진화 과정은 당위의 자연사(自然史)가 아닌 존재의 자연사만을 보여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당위로서의 도덕규범도 경험적 사실로부터 추론될 수는 없습니다.</p>
 <p>1 2</p>	
<p>그렇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협동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아 스스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도덕은 생물학적 원인에서 비롯된 경험적 사실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p>	<p>제 입장에서 판단할 때 당신의 주장은 <input type="text" value="㉠"/>고 생각합니다.</p>
 <p>3 4</p>	

- ① 도덕규범은 진화로부터 파생된 산물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도덕의 근원이 생물학적 원인에서 비롯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당위로서의 도덕규범이 경험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도덕의 근거가 인간 종의 발생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인간의 생물학적 기원이 도덕의 합리적 기초로 작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27)[21 ebs 수특, 주관식]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순전히 도덕적 존재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최대의 훼손은 진실성에 대항하는 것, 즉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거짓말로 타인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는 이 파악의 특유성이 아니므로 여기서 고려 항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것은 한낱 영리함에서의 실수로서 도덕적 준칙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준칙과 상충하는 것일 터이고, 전혀 의무의 훼손으로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의 원인은 한낱 경솔일 수도 있고, 선량함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거짓말을 통해 실제로 선한 목적이 의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적을 좇는 이러한 방식은 그 형식만으로도 인간의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한 범죄이고, 자기 자신의 눈에 인간을 경멸스럽게 만드는 천박한 짓입니다.



보기

- ㄱ. 거짓말은 자신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ㄴ. 선한 목적을 위한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이다.
- ㄷ. 거짓말은 자신에 대한 진실성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 ㄹ. 거짓말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28)[21 ebs 수특] 적절한 것을 골라!

- (가) 개별적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유용성의 원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각각 대안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옳은 행위란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갖는 것이다.
- (나) 한 행위는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위반하면 그르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 규칙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따를 때가 다른 어떤 규칙을 따를 경우보다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 내지 쾌락과 더 적은 불행 내지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규칙이다.

- ① (가): 도덕적 직관에 맞지 않는 행위는 유용하더라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 ② (가):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를 옳은 행위의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③ (나): 공리의 원리를 규칙이 아닌 개별 행위에 적용해야 한다.
- ④ (나): 유용성의 원리와 관계없이 도덕 법칙을 의무로서 실천해야 한다.
- ⑤ (가), (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적 판단의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판을 (나) 그림으로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p>갑: 덕은 하나의 인간의 성질로서, 그것의 소유와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또 그것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의 성취를 방해한다.</p> <p>을: 무릇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경향성의 영향 및 그와 함께 의지의 일체 대상을 전적으로 격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의지에 대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 주관적으로는 이 실천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 외에 남는 것은 없다.</p> <p>병: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더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 삶의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lt;법례&gt;</p> <p>→: 비판의 방향</p> <p>A~F: 비판의 내용</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lt;예시&gt;</p> <p> </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 ① B: 도덕적 행위에는 자연적 감정과 동기가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C: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D: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 행위 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E: 개인의 선호보다는 공동체의 전통을 중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A, F: 도덕 원리의 정립보다 행위자의 품성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30)[21 ebs 수록, 주관식] 어떻게 푸는지 알지?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

올바르게 행위 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성향, 동기, 감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흠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려는 유혹조차 받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여기서 선한 사람이란 덕이라는 특별한 도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덕은 습관적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성품의 훌륭함이자 훈련된 행동 성향이다.

- 보기
- ㄱ.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ㄴ.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을 하려면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한다.
  - ㄷ.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적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 ㄹ. 올바르게 행위 하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습관화해야 한다.

31)[21 ebs 수특, 주관식] 어떻게 푸는지 알지?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가)	<p>갑: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만약 내가 돈이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돈을 빌리면서 갚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비록 돈을 갚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해도 말이다."라는 행위의 준칙을 세우고, 나는 자기 사랑의 요구를 보편적 법칙으로 변환하여, "만약 나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된다면,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물음을 해 본다. 그때 나는 나의 준칙이 결코 보편적 자연법칙으로 타당할 수 없고, 자기 자신과 합치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필연적으로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p> <p>을: 공리성이란 이익 당사자에게 이익·이득·쾌락·선·행복을 낳거나 손해·해악·고통·악·불행이 발생하는 일을 막는 경향을 지닌, 어떤 대상에 들어 있는 성질을 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만일 그 당사자가 일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이 될 것이고, 그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이 될 것이다. 숨을 쉬는 인간이라면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공리성의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p>
(나)	
보기	
<p>ㄱ. A: 개인이 설정한 모든 준칙을 도덕 법칙으로 간주해야 한다.</p> <p>ㄴ. B: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p> <p>ㄷ. B: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한 행위 자체의 옳음에 근거해야 한다.</p> <p>ㄹ. C: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불행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이다.</p>	

32)[21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성들이 도덕 문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책임과 배려의 개념들이 핵심적이라는 것, 여성들의 사고에서는 자아관과 도덕관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남성들과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의 관점을 포함하는 더욱 확장된 발달 이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성의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 여성들의 발달을 설명할 때뿐만 아니라, 양성 모두의 성인적 도덕관이 지닌 특성과 그 전 단계들을 이해할 때에도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남성과 여성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은 동일하다.
- ② 남녀의 성차는 존중해야 하지만 남성의 경험은 배제해야 한다.
- ③ 개인의 도덕성을 탐구할 때는 여성의 관점만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 ④ 여성의 도덕 판단은 보편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올바르게 된다.
- ⑤ 성인 남성들이 지닌 도덕성을 공감과 관련해서 탐구해 보아야 한다.

33)[21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는 행위의 질서를 위해, 또 행위 할 수 있는 권력의 규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새로운 종류의 행위 능력은 윤리의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며, 또 새로운 종류의 윤리를 요구하기까지 한다. 인간은 거짓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거짓말의 동기와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압력이 인간의 새로운 기술 능력의 존재와 더불어 기술적 행위 능력에서 발생한다. 기술 능력의 존재는 윤리에서 새로운 것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의 행위 권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전통적 윤리의 개념들 밖으로 내몰려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이제 우리는 미래 인류의 실존에 대한 책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①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는가?
- ② 인간은 기술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윤리 규범을 따라야 하는가?
- ③ 현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의 범주도 확대되는가?
- ④ 인류의 존속에 대한 책임은 조건적 의무가 아니라 무조건적 의무인가?
- ⑤ 책임의 윤리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호혜적 관계에 근거해야 하는가?

도덕 추론 과정(3단 논법, 수특 1강)

34)[16 ebs 수특] (가), (나)는 도덕적 추론을 구성하는 판단의 유형들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있는 대로 골라(1개~모두).

판단 유형	판단의 예
(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된다.
(나)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그릇된 행위이다.

- ① (가)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 ② (가)는 거짓된 진술도 포함될 수 있다.
- ③ (나)는 가치 문제와 관련이 없는 판단이다.
- ④ (나)의 진위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판별된다.
- ⑤ (가), (나)는 모두 가치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35)[18 ebs 수특]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응용 윤리학에서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도덕 원리를 특정한 문제 상황에 적용시켜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즉, 모두가 합의하는 대전제로부터 소전제를 거쳐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나) 응용 윤리학에서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개별적 도덕 판단으로부터 출발하여 도덕 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 도덕 문제와 비슷한 사례 및 이를 둘러싼 맥락 간 유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 답안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면, (가)는 ㉠도덕 원리에서 구체적 문제 해결 방법을 연역해 내는 하향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나)는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구체적 사례로부터 도덕 원리를 이끌어 내는 상향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가)는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도덕 원리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 받고 있으며, (나)는 ㉣사례 분석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에 대한 탐구가 사전에 필요함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한편 (가)는 (나)와 달리 ㉡도덕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 상황과 관련된 포괄적 도덕 원리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을 부정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6)[19 ebs 수특] 다음은 도덕적 추론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가끔씩 피부색이 다른 친구가 차별받는 것을 보면 아직도 청소년들의 인권 의식이 낮다는 생각이 들어.

㉠ 도덕 원리(대전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A

㉡ 사실 판단(소전제): B

㉢ 도덕 판단(결론): 피부색이 다른 친구를 차별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생각을 정리해 수업 시간에 배운 도덕적 추론 과정으로 나타내면 칠판의 내용과 같겠군.

- ① 타당한 도덕적 추론이 되기 위해 A에는 '옳지 않다.'가 들어가야 한다.
- ② ㉠에는 다른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도덕 원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 ③ ㉡에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사실적 특성이 서술되어야 한다.
- ④ ㉢의 내용이 타당하려면 ㉠, ㉡에 모두 가치 중립적인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 ⑤ B에는 '피부색이 다른 친구를 차별하는 행위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가 들어가야 한다.

37)[17 abc 스토리] 다음은 도덕적 추론의 과정을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복 운전은 옳지 않다.'라는 도덕 판단을 도덕적 추론의 과정을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대전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옳지 않다.
㉡ 소전제	(가)
㉢ 결론	보복 운전은 옳지 않다.

- ① (가)에 들어갈 내용은 '보복 운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이다.
- ② 도덕 추론 과정에서는 ㉠에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들어가야 한다.
- ③ 도덕적 추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에 대한 사실 근거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 ④ 주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의 진위를 파악한다.
- ⑤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하여 ㉢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도덕적 추론의 과정이다.

38116 abc 스토리 그리오 스터이 판서 대유이다.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덕적 추론〉

1. 의미 : 도덕 판단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판단이 옳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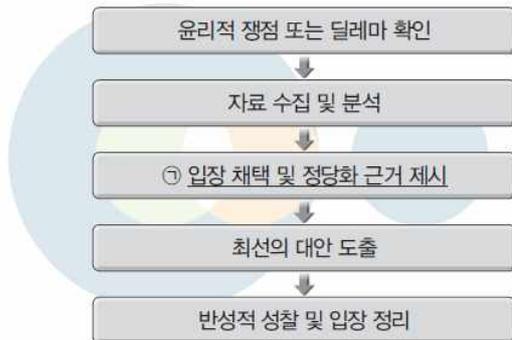
2. 추론 과정(삼단 논법)

㉠ 대전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	
㉡ 소전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	
㉢ 결론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① ㉠의 도덕 원리는 보편화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은 개념과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다.
- ③ ㉢은 어떤 행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 ④ ㉢은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 없는 주관적 판단이다.
- ⑤ ㉡은 ㉢과 달리 사실적 증거로써 검증이 가능하다.

**07** 다음은 도덕적 탐구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것이다.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탐구 주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정당방위 논거 허용 여부)



- ①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분석한다.
- ②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해 배운 점을 검토한다.
- ③ 인공 임신 중절이 지니는 윤리적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④ 불가피하게 인공 임신 중절이 필요한 경우의 제도와 절차를 도출한다.
- ⑤ 생명이 위급한 임신부의 입장이 되어 인공 임신 중절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밀의 자유론**

41)[16-3교-8]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한 사람 이외의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한 사람만 반대 의견을 갖는다 해도, 인류가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나)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ext-align: center;">(A)</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ext-align: center;">(B)</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able> <p>[가로 열쇠]                  (A):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고 협의함.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                  (B): 일반 대중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의견. □□ 조사</p> <p>[세로 열쇠]                  (A): …… 개념</p>								(A)				(B)								
		(A)																			
	(B)																				

- ① 다수의 의견이 오류가 없음을 입증하는 속고의 과정이다.
- ② 인간의 무오류성을 전제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 ③ 기존의 진리에 대해 복종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 ④ 오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진리를 찾기 위한 논의의 과정이다.
- ⑤ 자신의 주장 관철을 유일한 목표로 상대방과 논쟁을 벌이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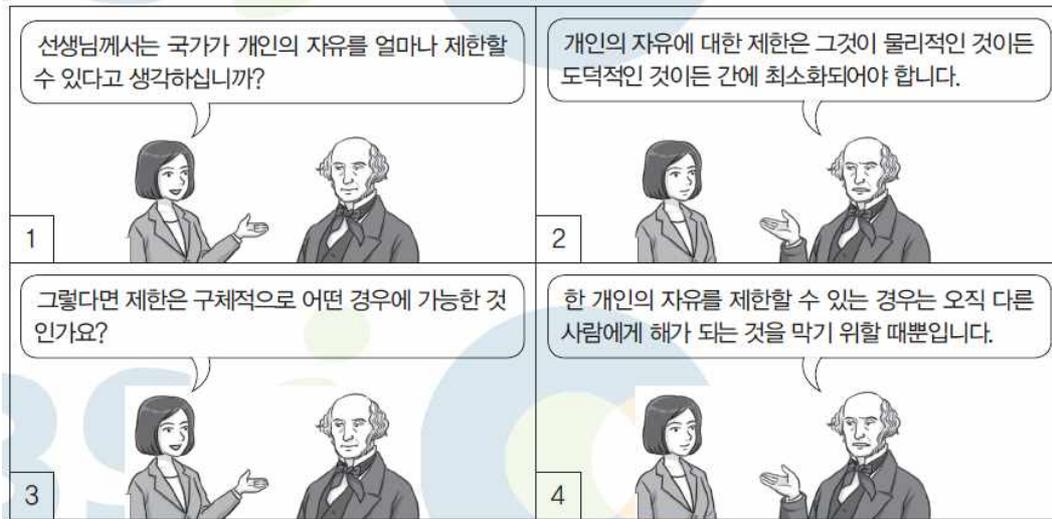
42)[21-9-14]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최대 행복의 원리는 모든 윤리적 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쳐 타인의 행복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은 정당하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례>  
 A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직장 동료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그들의 동의없이 인터넷에 게시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 ① 가상 공간에서도 타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② 가상 공간에서도 유용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③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게 될 결과를 고려하세요.
- ④ 가상 공간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세요.
- ⑤ 가상 공간에서는 쾌락 증진을 위한 행동이 금지됨을 명심하세요.

43)[20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개인의 독립성에 대해 최소한으로만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악 금지의 원칙을 따를 때만 정당한 것이라고 본다.
- ③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경우에는 국가의 통제가 정당하다고 본다.
- ④ 개인의 행동이 본인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국가는 그 행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 ⑤ 사회적으로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개인에게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고 본다.

(가)의 관점에서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토론과 경험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사실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론이 필요하다. 잘못된 의견과 이에 근거한 행위는 점차 경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과, 토론에서 행해진 논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판단이 지니고 있는 힘은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옳은 것으로 고칠 수 있다는 인간의 유일한 특성에 달려 있다.
(나)	㉠ <input type="text"/> , 그러면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인간이 완전무결한 존재임을 인정하세요
- ② 전통적 원리나 학설이 언제나 옳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 ③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상가의 견해를 따르도록 하세요
- ④ 감각적 경험만이 진리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세요
- ⑤ 사람들에게 의견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세요

# 2단원

## 삶과 죽음의 윤리(수특 3강)

45[ebs 탐스런] 서양 사상가인 갑의 입장에서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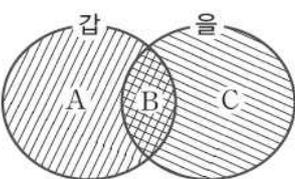
갑 :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은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된다.

을 : 죽음에는 어떤 윤리적 의미가 있습니까?

갑 : \_\_\_\_\_ (가) \_\_\_\_\_

- ① 다른 세상으로 윤회하는 시작이 된다네.
- ②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된다네.
- ③ 인간 사회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조건이 된다네.
- ④ 도덕적 주체로서 한 인간의 삶의 출발점이 된다네.
- ⑤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네.

46[19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다 골라!

(가)	<p>갑: 현자(賢者)는 삶을 도피하려 하지 않으며, 삶의 종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삶이 그에게 해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삶의 부재가 해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향유하기를 원한다.</p> <p>을: 생명이 와서 태어나는 것을 물리칠 수 없듯이, 그것이 떠나가 죽음을 맞는 것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체만을 길러 생명을 오래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슬픈 일이 아닌가? 세상의 일을 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하면 생명이 되살아난다. 생명이 되살아나면 참된 생명이 실현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div>

보기

- ㄱ. A: 죽음은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자연적 과정이다.
- ㄴ. B: 죽음에 대한 실존적 자각을 통해 사회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 ㄷ. B: 죽음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 ㄹ. C: 죽음이 모든 존재의 원리인 도(道)에 근거함을 깨달아야 한다.

47[10] (가)는 어떤 이유로 인간적인 가치에만 모든 '가'를 포기한 것일까요?

- 죽음은 현존재에게 가장 고유하고, 가장 극단적이며, 다른 가능성들에 의해 능가될 수 없고,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 죽음과 관련해 '비본래적' 존재는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 하고, 세상 사람(평균인)들의 일반적 기준을 자신의 궁극적 가치로 받아들이지만, '본래적' 존재로서 실존은 죽음을 자신에게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그동안 집착했던 일상적인 가능성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자각한다. 이를 통해 현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죽음으로의 선구(先驅)'를 한다. 즉 죽음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용기 있게 인수하면서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을 선택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현존재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		√	
현존재는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해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물을 줄 알아야 한다.				√	√	√
현존재는 죽음 이후 영혼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	√
현존재는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을 회피나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			√	√		√

48[20 ebs 수록]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인간은 사라질 육체에 갇혀 지내는 동안은 이데아에 관한 앎, 즉 참된 지혜를 얻기 어렵다. 인간은 순수한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이 영혼을 정화하는 일이라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정화될 필요 없이 순수한 영혼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나)	인간은 오온(五蘊)의 집합에 불과하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라는 것도 이 다섯 가지가 모인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여서 인간 생명이 형성되며 이 요소들이 흩어질 때 생명이 다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인간은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한없이 되풀이될 수 있다.

- ① (가)는 죽음을 육체에 갇혀 있던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라고 본다.
- ② (나)는 인간이 죽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죽음을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의 하나로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인간은 죽음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된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인간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고 본다.

49)[20 ebs 수특]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A~D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 보는 순간에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자기의 고유한 죽음으로 달려가 보는 것은 현존재의 준엄한 과제이다.</p> <p>을: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기 때문이다.</p> <p>병: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영혼만을 사용하여 참된 실재를 인식할 수 있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 ① A: 죽음 이후에는 모든 영혼의 활동이 정지된다.
- ② B: 죽음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③ C: 죽음 이후에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 ④ D: 죽음 이후에도 불멸의 영혼이 존재한다.
- ⑤ D: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

50)[21 ebs 수특]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일체의 생명체는 모두 죽어 수명은 반드시 죽음으로 돌아간다. 업(業)에 따라 각각 선악의 과보를 받는다. 복을 닦으면 천상으로 올라가고 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도를 닦으면 태어남과 죽음을 끊고 열반에 든다.

을: 성인(聖人)은 살아 있을 때는 자연스레 행동하고 죽으면 만물의 변화를 따르며, 고요히 있을 때는 음(陰)에 덕을 갖추고 움직이면 양(陽)에 조화된다. 마음을 텅 비게 하고 조용히 담담하므로 비로소 자연의 덕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 ① 죽음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인가?
- ② 죽음은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인가?
- ③ 죽음 이후에야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④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으므로 죽음에 초연해야 하는가?
- ⑤ 깨달음을 통해 삶과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51)[21 ebs 수특]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뜻있는 선비와 덕을 이룬 사람은 삶을 구하여 인(仁)을 해치는 일이 없고, 몸을 죽여서도 인을 이룸이 있다.</p> <p>을: 중생은 어디에서도 요란하여 안정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흘러 다니기를 쉴새 없이 하여, 결국에는 태어나고 죽음에 돌고 돌아 나오지 못한다.</p> <p>병: 사람이 사는 것은 기(氣)가 모이기 때문이며, 기가 모이면 삶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이처럼 죽음과 삶은 뒤쫓는 것이니 내가 또 어찌 괴로워하겠는가.</p>
(나)	<div style="margin-top: 10px;"> <p>&lt;범례&gt;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p>&lt;예시&gt;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 ① A: 현생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함을 간과한다.
- ② C: 삶과 죽음이 모두 고통임을 간과한다.
- ③ E: 자연의 한 과정인 죽음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음을 간과한다.
- ④ F: 삶과 죽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할 대상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⑤ B, D: 삶과 죽음은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에 해당함을 간과한다.

52)[21 ebs 수특] 갑, 을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옳게 대답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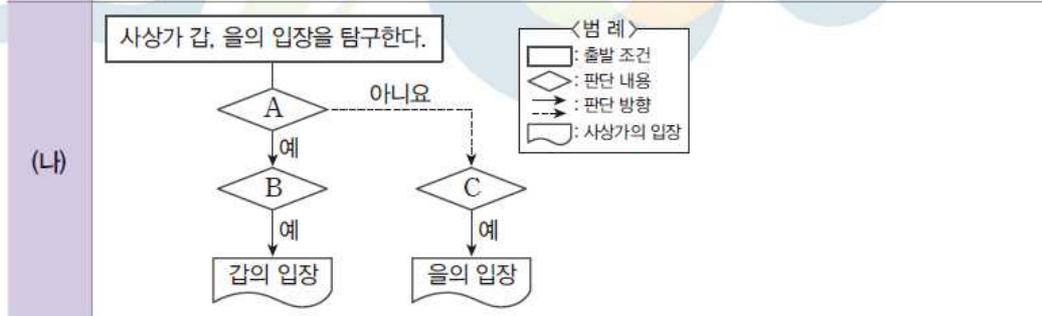
갑: 태아는 무고한 인간 존재이다.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 그릇된 일이듯, 태아를 죽이는 것 역시 그릇된 일이다. 태아와 태아로부터 비롯된 인간은 연속성을 지니며, 둘 사이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구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을: 태아는 무고한 인간 존재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능력이나 자의식을 지니지 않고 있다. 이처럼 태아는 인격체가 아닌 까닭에, 어떠한 태아도 인격체가 생명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여성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인공 임신 중절은 정당하다.

	질문	대답	
		갑	을
①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	예	예
②	태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인간 존재인가?	예	아니요
③	태아와 인간 사이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예	아니요
④	여성의 선택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하는가?	아니요	예
⑤	태아를 온전한 능력을 지닌 인격체로 볼 수 없는가?	아니요	아니요

53)[21 ebs 수특, 주관식] 적절한 것만을 고르셈!

(가) 갑: 육체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무엇이든지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를 떠나야 한다. 영혼이 그 자체로 돌아가야 사물들을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한다. 반면 현자는 삶의 종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원한다.



- 【 보기 】
- ㄱ. A: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가?
  - ㄴ. B: 죽음 이후에 인간은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가?
  - ㄷ. B: 죽음은 소멸하는 육체와 불멸하는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가?
  - ㄹ. C: 죽음은 원자가 해체되는 것으로 감각이 소멸함을 의미하는가?



56)[13 ebs 수완 활용]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1개 이상)

갑: 성고가 없다는 점과 자의적으로 생식을 조작한다는 점에서 체외 수정이나 인간 복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체외 수정이 허용되듯이 인간 복제도 허용해야 해. 그리고 인간 복제술이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을 입히지 않는다면, 인간은 인간 복제술을 통해 자녀를 얻을 수 있어.

을: 혈~ 너의 주장에 따라 생식용 인간 복제를 허용하면 [ ㉠ ]는 문제점이 있어.

- ① 인간의 생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 ② 인간 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
- ③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④ 양쪽 부모를 가질 수 있는 아기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복제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 ⑥ 인간 생명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 ⑦ 인간 종의 유전적 개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 ⑧ 줄기세포 추출 후 배아를 폐기해야 한다
- ⑨ 배아도 인간 생명임을 간과한다

57)[17-10교-9] 다음은 우리나라 의료법의 일부 조항이다. 이 조항들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9조 <1>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0조 <1>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2>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의료인들 간에 환자의 정보를 가능한 한 공유해야 한다.
- ② 의료인은 낙태를 위한 성 감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③ 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환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④ 의료인은 임부에게 태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⑤ 의료인은 임부의 알 권리를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시해야 한다.

58)[21 ebs 수특]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됨!

갑: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배아는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 과정에서 배아가 파괴되더라도 동물 실험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다.  
 을: 배아는 잠재적 인간 존재로서 특수한 지위를 지닌다. 배아는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도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배아에 대한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배아에 대한 존중과 비교해 볼 때 배아의 생명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 ① 갑은 동물과 달리 배아를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배아가 출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효용성이 배아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배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배아를 훼손하는 행위를 생명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

59)[21 ebs 수특]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동물 실험을 통해 수많은 새로운 치료법과 신약 개발이 이루어졌다. 동물 실험이 없으면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동물 실험은 심각한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을: 동물 실험의 결과 안전한 약으로 판정받았지만 인간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다. 동물 실험이 지닌 불가피한 과학적 맹점들이 존재한다. 또한 동물 실험의 대안이 존재하므로 동물을 희생하는 동물 실험은 금지해야 한다.

ㄱ. 동물 실험을 대체할 다양한 실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ㄴ. 선한 목적을 갖는 행위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ㄷ. 감각을 지닌 존재는 인간의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ㄹ. 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동물 실험이 해악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0)[21 ebs 수특, 객관식 같은 주관식] 다음 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을 골라.

유전 공학으로 인간 생명을 정복하거나 통제하여 유전적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릇된 것이지만, 유전 공학을 의학적인 치료의 목적에 사용한다면 정당하다.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유전적 강화가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허용해야 한다. 배아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고 생명체로서 존중의 대상이지만 완전한 인격체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입장					
배아는 잠재적인 인간으로서 불가침의 권리를 지닌다.	V			V	V
배아 줄기세포 이용은 연구 목적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V		V	V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기 위한 인위적인 개입은 부당하다.	V		V	V	
유전 공학을 이용한 적극적 우생학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V	V		V

성과 사랑 (수완 5강)

61)[21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골라.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타인에게 베푸는 것 또는 주는 것으로써 특징을 보인다. 또한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기본 요소가 발휘되어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네 가지 사랑의 기본 요소들은 서로 개념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성숙한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 사랑만이 인간 존재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는 올바른 길이고,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

- 【 보기 】
- ㄱ. 사랑은 어머니와 태아와 같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다.
  - ㄴ.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 가는 합일의 과정이다.
  - ㄷ. 사랑의 대상을 존중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ㄹ.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상대방의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62)[16~21 ebs 수특 활용, 주관식] 에리히 프롬의 견해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

- ① 사랑은 상대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② 사랑은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상대와 자기가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는 것이다.
- ④ 사랑은 상대를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것이다.
- ⑤ 사랑은 상대의 성장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 ⑥ 사랑의 본질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 ⑦ 사랑은 두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다.
- ⑧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 ⑨ 사랑은 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타자를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능하다.
- ⑩ 사랑의 실패 원인을 알고 그 의미를 배울 때 사랑의 실패 극복이 가능하다.
- ⑪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개성을 포기하여 상대방과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 ⑫ 사랑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감정이다.
- ⑬ 모든 사랑의 형태에 내포되어 있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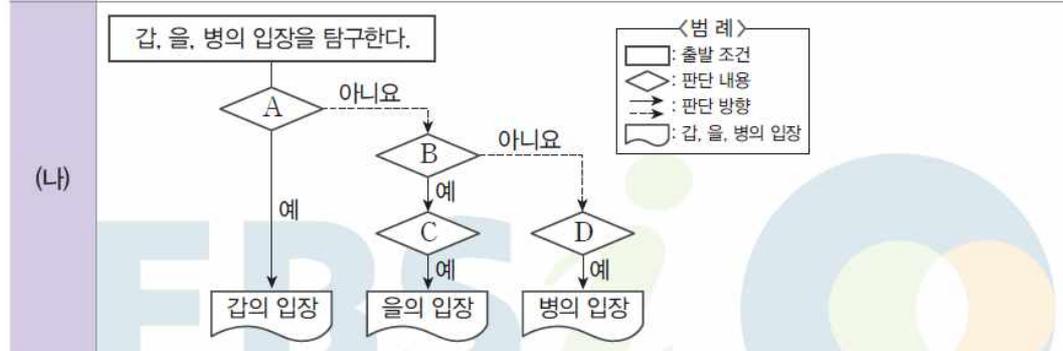
63)[18 ebs 수특] 다음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로 모르고 지냈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된 순간은 유쾌한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이 경험은 성적 매력에 의해 결합될 때 더욱 촉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그 성격상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점차 친숙해지면 권태감으로 인해 최초의 흥분은 흔적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포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은, 사랑이 모든 형태의 사랑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으로, 우리는 성숙한 사람에게서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① 사랑의 본질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 ② 사랑은 두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 ④ 사랑은 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타자를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능하다.
- ⑤ 사랑의 실패 원인을 알고 그 의미를 배울 때 사랑의 실패 극복이 가능하다.

64)[21 ebs 수특, 주관식] 국어로 푸셈!

(가) 갑: 성은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전제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에만 도덕적이다.  
 을: 성은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한계 내에서 자유롭다. 성은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와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병: 성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인간적 성의 고유한 가치이다. 사랑 있는 성은 혼인을 전제하지 않아도 정당화될 수 있다.



- 보기
- ㄱ. A: 남녀의 사랑이 결부된 혼전 성적 관계는 잘못된가?
  - ㄴ. B: 성의 정당성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과 무관한가?
  - ㄷ. C: 성적 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에서 배제되는가?
  - ㄹ. D: 부부가 아니어도 정당한 성적 관계가 성립 가능한가?

결혼과 가족의 윤리(수특 5강)

65)[21 ebs 수특, 주관식]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

(가)	근본적으로 양은 음에 근원하고, 음은 양에 근원한다. 음만으로는 만물을 낳지 못하며 양만으로는 만물을 성숙시킬 수 없다.
(나)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이/가 있으며, ㉠이/가 있고 난 다음에 부자가 있으며, 부자가 있고 난 다음에 형제가 있다. 한 집안의 친족은 이 셋뿐이다.

| 보기 |

ㄱ.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 친륜의 관계이다.  
 ㄴ.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관계이다.  
 ㄷ. 서로의 역할을 구별해야 하는 상호 보완 관계이다.  
 ㄹ. 서로 독립적인 삶의 영역을 확장해야 하는 관계이다.

66)[18 ebs 수특] 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은/는 두 성(性)이 합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겨 제사의 주인이 되며,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계승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을 서약하는 의식이다. 따라서 군자는 이를 중히 여겨 감히 소홀히 하지 않는다.
- ① 부모와 사회의 인정을 받아서 한 가정을 꾸리는 의식이다.
  - ② 이해타산적 합리성에 기초해 서로 함께하겠다는 서약이다.
  - ③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을 다하고 의리를 지키겠다는 서약이다.
  - ④ 두 가문의 남녀가 결합하여 상호 헌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식이다.
  - ⑤ 위로는 조상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낳아 가계를 잇겠다는 서약이다.

67)[16 ebs 수특]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 ]은/는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 의미는 대체로 인간다움[仁者人也]을 의미하거나 사랑의 정신[愛人也]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조건적이며 구별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어서 오직 [ ㉠ ]의 정신을 온전히 체득한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보기>
- ㄱ. 부모의 뜻을 헤아려 무조건 복종하고 실천할 때 완성된다.
  - ㄴ. ㉠은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예(禮)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 ㄷ. ㉠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덕목으로는 효(孝)가 있다.
  - ㄹ. 형제자매와 친구, 친족 사이에도 존재해야 할 당위 규범을 말한다.

68)[교사용 지도서+14 ebs 수특] 다음 글의 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0개~모두)  
 “순임금이 아버지를 섬기는 도리를 다함에 고수가 안락을 이루었으니, 고수가 안락하매 천하가 교화되었으며, 고수가 안락하매 천하의 부자간은 이를 본받아 또한 안정되었다. 이것을 일러 대효(大孝)라 하는 것이다.”

\* 고수 : 순임금의 아버지

- ① 효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쌍무적인 행위이다.
- ② 효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자 마음이다.
- ③ 효는 국가의 질서 유지에 근간이 될 수 있다.
- ④ 효는 올바른 가정 교육의 결과이다.
- ⑤ 효는 덕치(德治)의 바탕이다.

69)[19 ebs 수특]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 명덕(明德)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 “선생께서는 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서경에서 말하기를 ‘효일지니! 오직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으며,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정치에 확산시켜 나가라.’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정치인데 어찌 정치에 실제로 종사해야만 곧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겠소.”

【 보기 】

- ㄱ. 가족 간의 친애를 버려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
- ㄴ. 가족을 다스리는 원리는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와 다르지 않다.
- ㄷ. 가족과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부터 수양을 해야 한다.
- ㄹ. 가족 공동체처럼 국가 공동체도 도덕을 바탕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70)[21 ebs 수특, 주관식] (가) 사상의 관점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

(가)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는다. 움직임이 극에 이르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에서 음이 생성된다. 고요함이 극에 이르면 다시 움직임이 시작된다.
(나)	남녀 간에 분별이 있는 다음, ㉠ 간에 의리가 있고, ㉡ 간에 의리가 있는 다음, 부자간에 친애함이 있고, 부자간에 친애함이 있는 다음, 군신 간의 바른 도리가 있게 된다.

【 보기 】

- ㄱ. 동기간으로 서로 사양하며 지내고 공경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ㄴ. 혈연적 관계로 가족 공동체와 신의를 지켜야 하는 관계이다.
- ㄷ.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는 상경여빈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ㄹ.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백년해로를 지향해야 하는 관계이다.

71)[21 ebs 수특, 주관식]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

㉠

○○에게

네가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단다. 옛 선현에 의하면  은/는 부모님께서 남겨 주신 몸을 함께 받았으니,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은 것이라 했단다. 그러므로 마땅히 서로 간격이 있게 보아서는 안 되며, 음식이나 의복의 있고 없음을 모두 똑같이 해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니? …(후략).

보기

- ㄱ. 서로 위계를 지키며 존중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ㄴ. 형우제공과 효를 함께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ㄷ. 인륜의 시작으로 상부상조하는 호혜적 관계이다.
- ㄹ. 혈연적 관계로 친밀함을 추구해야 하는 관계이다.

# 3단원

## 직업과 청렴의 윤리(수특 6강)

72)[20 ebs 수특, 주관식]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골라.

사회자: 우리는 인생의 상당 부분을 일과 직업 생활을 하며 보냅니다. 우리는 일과 직업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갑: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온전한 삶이란 노동과 여가가 분리된 삶이다. 인간은 여가를 얻기 위해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신과 인생에 대해 관조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육체노동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받은 벌입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명상과 신을 향한 기도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을: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으셨으므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셨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직업을 신께서 정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보기

- ㄱ. 갑: 세속적인 일의 유일한 기능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 ㄴ. 을: 근면 성실한 직업 생활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 ㄷ. 을: 일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 ㄹ. 갑, 을: 육체노동은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73)[20 ebs 수특] 올바른 학생을 골라!

-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勞心]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의 힘을 수고롭게[勞力] 한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몸의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 의해 먹고사는 것이 천하의 보편적인 원리이다.
- 고정적인 생업[恒産]이 없으면서도 항상적인 마음[恒心]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일반 백성의 경우는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상적인 마음도 없어진다. 만일 항상적인 마음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몸의 힘을 쓰는 일에 능해야 한다.	✓	✓		✓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다.			✓	✓	✓	
경제적 안정은 백성들이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		✓		✓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	✓	

74)[20 ebs 수특, 주관식]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골라.

갑: 군자는 작은 일은 잘 못해도 큰일은 맡아 할 수 있고, 소인은 큰일은 감당 못해도 작은 일은 잘할 수 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을: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뽑아 쓰고, 덕이 없고 무능한 사람은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그만두게 해야 한다. 힘든 일은 누구나 싫어하고 이익은 누구나 좋아하므로 예로써 일을 나누어야 다툼이 없을 것이다.

【 보기 】

- ㄱ. 주어진 사회적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 ㄴ.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 ㄷ. 개인의 덕에 따른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ㄹ. 군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 통달해야 한다.

75)[21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갑: 삶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는 자연 위에 있고 인간의 삶을 초월한다. 그것은 유일하신 신을 전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예배하는 삶이다. 그런 삶이야말로 완전한 모습이다. 또 다른 삶은 좀 더 비천하고 인간답게 사는 삶이다. 그것은 사람이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능한 삶이다.

을: 자기의 소명을 이루는 일을 삶의 목표로 두는 사람만이 적절히 틀이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사람은 온갖 불편과 근심거리 등이 모두 신이 지워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아무런 불평 없이 지고 나아간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귀한 위로가 생긴다.

【 보기 】

- ㄱ. 갑은 종교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삶을 열등한 삶으로 본다.
- ㄴ. 을은 각자가 성실한 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얻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본다.
- ㄷ. 을은 신의 은총에 의해 주어진 모든 물질을 검소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은 을과 달리 신의 부르심에 따르는 모든 육체적인 노동이 고귀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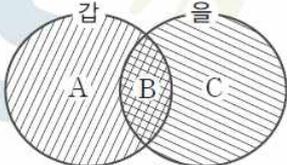
76)[21 ebs 수특] 고르면 됨!

갑: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온 세상을 차지할 만큼 부유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제정하고 분별을 마련하여,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그에게 합당한 일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을: 사람은 제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각각의 것이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그리고 더 쉽게 이루어지는 때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자신의 성향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하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한가로이 대할 때이다.

- ① 갑은 직업 활동이 욕망 충족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한 구성원이 여러 가지 직종에 종사해야 이상적인 사회라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적 역할이 덕에 따라 분배되어야 공정하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개인의 직분 수행이 사회 구성원들의 윤택한 삶에 이바지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치의 주체가 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본다.

77)[21 ebs 수특] 고르면 됨!

(가)	<p>갑: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를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경계가 이미 바르면 토지를 나누는 일은 없어서 정할 수 있다. 군자(君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야인(野人)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니,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리지 못하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봉양하지 못한다.</p> <p>을: 인성(人性)이 악하므로 예의를 일으켜 다스리고자 한다. 왕자(王者)의 정치는 차례를 기다림 없이 등용하고, 무능한 자는 그만두게 한다. 왕공의 자손이라도 예의를 힘써 할 수 없다면 서인(庶人)으로, 서인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쌓아 몸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힘써 행할 수 있다면 경상이나 사대부로 귀속시킨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div>

- ① A: 각 구성원의 직업은 예의에 바탕을 두고 정해짐이 마땅하다.
- ② A: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신분이 이동하면 공동의 선이 증진된다.
- ③ B: 사회적 분업에 따라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는 유지된다.
- ④ C: 경제적 안정은 백성이 선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 ⑤ C: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서로 유기적 관계이다.

78) [21 ebs 수특, 주관식] 옳은 진술을 있는 대로 골라.

공산주의 사회는 인간을 구속하는 노동의 분화, 곧 분업이 사라져 사회 구성원 중 누구도 배타적인 영역을 갖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나 스스로를 도야시킬 수 있다. 사회가 전반적인 생산을 조절하기 때문에 사냥꾼, 어부, 비평가가 되지 않고서도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오늘은 이것을, 내일은 저것을, 즉 아침에는 사냥을, 오후에는 낚시를, 저녁에는 목축을, 식사 후에는 비평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사회는 공동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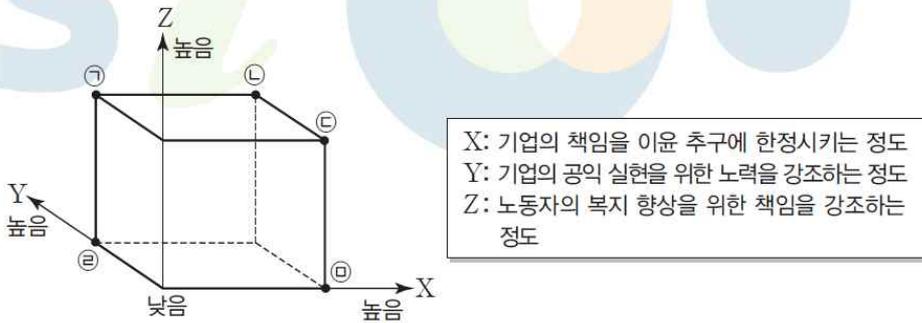
- ①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에서 자아실현 그 자체로서의 노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②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의 자질을 다방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③ 이상 사회는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 사이의 차별과 대립이 사라진 사회이다.
- ④ 노동자는 전문화된 분업화를 통해 비로소 자본가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 ⑤ 자신이 만든 물질에 지배당하는 인간 소외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공직, 기업, 전문직 윤리(수특 6강)

79)[20 ebs 수특]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에서 골라!

갑: 자유 경제 체제에서 경영자들은 오직 기업의 소유주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일반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만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을: 기업은 환경 보호, 사회 복지 공헌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갖게 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에 도움을 준다. 생산품의 안전성 맥락에서, 회사가 받아들인 윤리 규칙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은 훨씬 더 향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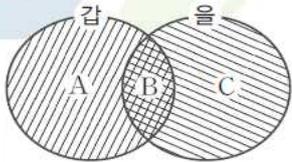


80)[15 ebs 수특, 주관식]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훌륭한 목민관(牧民官)이 되려면 반드시 자애(慈愛)로워야 하고, 자애로우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면 반드시 절용(節用)해야 한다. 그러므로 절용이야말로 목민관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한 고을을 얻으면 건방져지고 사치스럽게 되어 절약하지 않는다. 재물을 함부로 써서 빛이 날로 불어나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아전들과 짜고 일을 꾸며 이익을 나눠 먹게 되고, 이익을 나눠 먹다 보면 백성들의 고혈(膏血)을 짜게 된다.

- < 보기 >
- ㄱ. 목민관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
  - ㄴ. 목민관은 사치하지 않고 검소한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 ㄷ. 목민관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 ㄹ. 목민관은 자기 수양을 통해 형이상(形而上)의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81)[19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가)	<p>갑: 기업에 이윤 극대화 외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면, 기업의 소유주나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기업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p> <p>을: 기업은 전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들 없이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 ① A: 기업은 공공선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 ② A: 기업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한다.
- ③ B: 기업은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 ④ C: 기업은 이윤 추구 외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
- ⑤ C: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경우에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82)[19 ebs 수특, 주관식]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최근 사회 과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리적 자본 혹은 인적 자본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듯이 사회적 자본 역시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자본이 물리적 사물, 인적 자본이 개인의 특성을 가리키듯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은 몇몇 사람들이 시민적 덕성이라고 부르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 【 보기 】
- ㄱ. 물리적 자본은 인적 자본과 달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
  - ㄴ.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금전적 자본으로 요약된다.
  - ㄷ. 시민적 덕성은 사회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 ㄹ.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은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83)[19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몽땅 골라.

(가)	<p>갑: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각 주체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p> <p>을: 모든 존재는 이것이 생(生)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滅)하면 저것이 멸한다.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因]과 조건[緣]이 상호 관계하여 성립된다.</p>
(나)	

- ① 갑: 모두가 평등한 주체로서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 ② 갑: 공동선이 아닌 개인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 ③ 을: 내 업무와 타인과의 연계성을 자각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④ 을: 자신의 직업 생활에 전념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⑤ 갑, 을: 자연의 순리를 알고 어떤 일도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84)[21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가)	<p>갑: 수호자는 마치 아영하는 군인들처럼 공동으로 식사하고 생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 안의 신성한 금은을 인간의 소유물과 섞음으로써 더럽혀서는 안 된다. 세상의 금은을 멀리함으로써 자신도 구하고 나라도 구원하게 된다.</p> <p>을: 목민관은 술과 여색을 끊고, 노랫소리와 음악을 물리치며, 공손하고 단정하고 엄숙하기를 큰 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해야 한다. 감히 놓고 즐기는 것으로써 다스림을 거칠고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목민관의 본연의 의무는 청렴이다.</p>
(나)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보기

- ㄱ. A: 각자의 사회적 역할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가?
- ㄴ. A: 국가 운영을 맡은 자에게 재산 소유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 ㄷ. B: 수호자와 생산자는 국가 통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 ㄹ. C: 공직자가 자아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렴하고 절약해야 하는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부어) (수특 7강)

85)[14 ebs 수특] 다음 글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람들의 이성적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감을 갖게 하며, 교육을 통하여 정의감이 길러지는 가운데 사람들을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결국,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 집단의 경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 …(중략)…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타성이다. 사회는 비록 불가피하게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 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보다 극복하기 어렵다.
- ③ 사회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회복으로 충분히 해결된다.
- ④ 개인의 이성적 통찰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 ⑤ 사회 집단은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86)[15 ebs 수특] ㉠에 들어갈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갑**: 인간의 이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의지를 갖게 하고 이러한 선의지는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부정의는 개개인의 선의지를 고취하여 이기적 충동을 극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을**: 아닙니다. 저와 같은 입장을 지닌 어느 서양 사상가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이행할수록 이기적 충동에 비해 이성과 선의지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개인의 선의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력에 의한 방법의 사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당신의 주장이 ㉠ 고 생각합니다.

<보기>

- ㄱ.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 사회 정의 달성에 기여함을 무시하고 있다
- 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집단 간의 갈등을 설명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ㄷ. 인간의 이성은 인간 존재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이익에 의해 타락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ㄹ. 인간의 이성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 세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함을 간과하고 있다

87)[21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자비심과 사회적 선의지는 결코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다. 우리 자신의 권리나 욕망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욕망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능력도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장 친밀한 사회 집단보다 규모가 큰 사회적 협력 모두는 일정한 강제성을 요구한다. 어떠한 국가도 순전히 강제성에 의해서만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강제성 없이 국가를 보존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 ① 인간 지성과 선의지가 증가하면 집단 간의 영구적인 힘의 균등이 실현된다.
- ② 개인의 도덕적 자각은 사회 집단의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③ 사회 정의 달성을 위한 강제적 요인은 윤리적 요인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 ④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 ⑤ 사회는 집단의 이기심을 제재하기 위해 사회적 강제력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88)[18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을 골라!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갈등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강제력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하고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적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V			V	V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이 지닌 독특한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V		V	V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V		V	V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방법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 배타적이며 개인의 도덕성과 조화될 수 없다.			V	V		V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89)[19 ebs 수특]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이기심, 반항, 강제력 등과 같이 도덕성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

- ①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동일한가?
- ②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 ③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의 도덕성을 결정하는가?
- ④ 개인의 선의지는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가?
- ⑤ 개인이 모두 도덕적이면 사회 갈등이 해결되는가?

90)[20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보기>

- ㄱ. 집단들 간의 문제는 개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 ㄴ. 집단은 개인에 비해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 ㄷ. 집단의 도덕성은 합리성과 선의지를 통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 ㄹ. 집단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다.

사회정의의 분류(수특 7강)

91)[16 ebs 수특] 다음은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의 정의론을 요약한 것이다. ㉠과 ㉡의 예로 적절한 것은?

특수적 정의의 하나로 ㉠의것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나눌 수 있는 명예 혹은 부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의 분배와 관련된 것으로 각 개인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교섭에 있어서의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앞의 것과는 달리 산술적 비례에 의한 동등성을 추구한다.

	㉠	㉡
①	손해를 입힌 만큼의 배상을 한다.	공공선을 위해 제정된 법을 지킨다.
②	공공선을 위해 제정된 법을 지킨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③	자신의 공적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는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
④	자신의 공적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는다.	손해를 입힌 만큼의 배상을 한다.
⑤	동일한 가치를 지닌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	자신의 공적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는다.

92)[18 ebs 수특 응용]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지 않은 사람, 또는 옳지 않은 행위는 모두 불공정하거나 동등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동등하지 않은 것 사이에는 하나의 중간이 분명히 있다. 이 중간이 바로 동등함이다. 즉, 지나침과 모자람이 있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동등함이 있다. 그런데 동등함은 분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적어도 두 사람과 두 가지 사물을 포함한다. 서로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사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

- 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 ② 각자의 가치에 비례에 비례하는 몫을 분배해야 한다.
- ③ 만민에게 사회적 가치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 ④ 권력이나 명예를 제외한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 ⑤ 재화 분배는 기하학적 비례와 산술적 비례의 중간이어야 한다.

93)[21 ebs 수특] 바나나들 속에 인간 1명이 섞여 있다. 인간을 골라라.

부분적 정의의 하나의 유형은 정치적 체제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나눌 수 있는 명예, 부 등의 분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분배받아 갖게 되면 싸움이 생긴다. 다른 하나의 부분적 정의는 교섭에 있어서의 올바름에서 찾을 수 있다. 법은 만일 한 사람은 해약을 끼치고 다른 사람은 해약을 당한 경우, 그 해약의 차이에만 주목하며 그 당사자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일반적 정의는 공동체의 행복을 지향하는 법과 관련된다.		√	√		√	
부와 명예는 각 사람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정의롭다.				√	√	√
이득과 손실 사이의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야 한다.		√		√		√
옳은 것을 원하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		√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람들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배 방식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도덕의식에 부합한다. 반면에 업적에 따른 분배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다. 업적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업적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분배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에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시할 경우 ㉠ 는 우려를 제기한다.

- ① 과열 경쟁을 초래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생산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
- ③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 ④ 빈부 격차의 심화를 초래하여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 ⑤ 선천적인 요소가 아니라 후천적인 요소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



분배 정의 사상가 모음(수특 7강)

96)[21 ebs 수특] 고르면 됨!

우리는 지배의 수단들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 서로 평등하다. 어떤 사회적 가치도 결코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사회 혹은 그렇게 이용될 수도 없는 사회가 복합 평등이 실현된 사회이다. 지배는 사회적 가치들이 상호 구분되는 내적인 근거들에 따라 분배되는 경우에만 배제된다.

- ① 구성원들은 동일한 사회적 가치를 동일한 양으로 소유해야 한다.
- ② 모든 종류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
- ③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가 사회적 가치인 것은 아니다.
- ④ 사회적 가치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산물이 아니다.
- ⑤ 모든 사회적 가치는 각각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지 않는다.

97)[21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있는 대로 골라.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일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이 요구하는 제도의 체계를 가정할 경우, 처지가 나은 자들의 더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체제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경우이다.

보기

- ㄱ. 공적 정의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 ㄴ.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분배 방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ㄷ. 정의의 원칙은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다수결 절차에 따라 합의되어야 하는가?
- ㄹ.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가 개선되는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가?

98)[18 ebs 수특] 다음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정교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습니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① 사회 제도가 갖추어야 할 우선적인 덕목은 효용성이다.
- ② 사회 전체의 복지 추구가 시민적 자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③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정의의 제 1원칙이다.
- ④ 최소 수혜자에 대한 배려가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 ⑤ 타인이 얻을 큰 선(善)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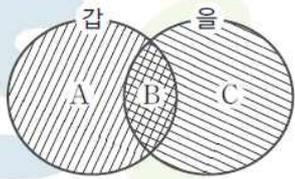
99)[16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사회 정의의 역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 사람들은 사회 협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큰 몫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중략)…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 정의의 원칙이다.

<보기>

- ㄱ. 여러 사회 제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 ㄴ. 효율성이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게 한다.
- ㄷ. 사람들이 공정한 상황에서 상호 간 협력을 도모하게 한다.
- ㄹ.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한다.

100)[19 ebs 수특] 알아서 골라줘! 제발~~

(가)	<p>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모든 행위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다.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때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p> <p>을: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하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를 도출하는 상황에서 각자는 자신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 원리에 합의하게 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div>

- ① A: 균등 분배를 통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 ② A: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분배는 결과와 관계없이 정의롭다.
- ③ B: 사회 극빈층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은 정의될 수 있다.
- ④ C: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 ⑤ C: 사회적·경제적 재화의 불균등한 분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

101)[18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첫째,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둘째, 소유물의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셋째, 어느 누구도 첫째와 둘째의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

<보기>

- ㄱ.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 ㄴ.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ㄷ. 취득과 양도 과정의 잘못에 대한 교정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 ㄹ. 국가가 개인들의 근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102)[16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과 일치하는 주장에만 'V'를 표시한 학생은?

- 국가에 관한 주된 우리의 결론은 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 강제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최소 국가는 정당화되며,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특정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 중앙 분배,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나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개인이 갖는 바는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여 또는 선물로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바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정의롭지 못하다.	V			V	V
분배 결과에 비추어 분배의 공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V	V	V
국가는 국민을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V	V		V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V	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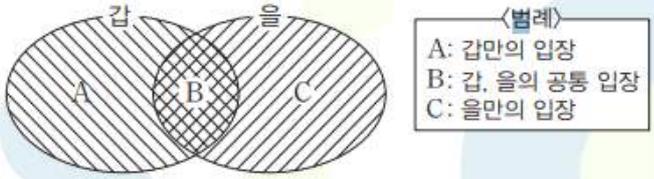
103)[17 ebs 수특 각색]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갑’에 의하면 합리적 행위자는 사회 내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리적 선택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회의 빈곤층을 소외시키지 않는 분배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추론하면서, 이를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한다. 반면, ‘을’에 의하면, 한 개인의 소유권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을 존중하는 분배는 정당하다고 전제한다.

<보기>

- ㄱ. 올바른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 ㄴ.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 ㄷ. 차등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 ㄹ. 무지의 베일을 통해 원초적 입장의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다.
- ① 갑-ㄱ, 을-ㄴ    ② 갑-ㄱ, 을-ㄷ    ③ 갑-ㄴ, 을-ㄹ  
 ④ 갑-ㄷ, 을-ㄴ    ⑤ 갑-ㄹ, 을-ㄴ

104)[18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p>갑: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p> <p>을: 우리의 경우, 모든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배적 정의와 연결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한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한 분배는, 이것이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p>
(나)	

<보기>

- ㄱ. A: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 ㄴ. B: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 ㄷ. B: 소득의 분배는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ㄹ. C: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분배 과정을 주도하는 국가가 필요하다.

105)[18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p>갑: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p> <p>을: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p> <p>병: 분배에서 옳음은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분배에서 옳음은 일종의 비례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례는 비율과 비율의 균등성을 의미하며 기하학적 비례에 해당한다.</p>
(나)	<p>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p> <p>〈법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p>

<보기>

- ㄱ. A :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승인될 수 있는가?
- ㄴ. B : 사회적 효용을 위해 소수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보는가?
- ㄷ. C :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가?
- ㄹ. D : 각 사람이 지닌 가치에 비례하여 재화를 분배해야 하는가?

106)[19 ebs 수특, 윤사] 알아서 골라!

갑: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다. 원초적 입장이란 거기서 도달하게 되는 기본적인 합의가 공정함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최초의 상태이다.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게 될 원칙들에 합의한다.

을: 정의의 원칙은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방법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 자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이한 이해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이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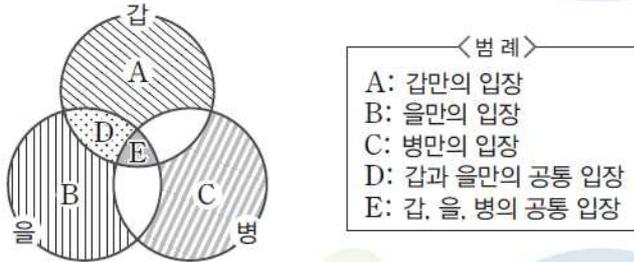
- ㄱ. 갑은 유연성을 제거한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에 따라 분배 대상과 방법이 달라진다고 본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사회적 기본 가치들이 모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ㄹ. 을은 갑과 달리 주요한 사회적 가치들과 그 의미는 사회마다 같다고 본다.

107)[19 ebs 수특, 윤사] 이것도 알아서 골라!

**갑:** 재산 및 소득의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을:** 분배적 정의의 원리는 오직 다음과 같다. 한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병:** 인간 사회는 중요한 점들에서 분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 ① A: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B: 개인의 소유 권리는 소유물의 취득 과정과 무관하게 보장해야 한다.
- ③ C: 정의의 영역들 간의 경계를 보호하여 복합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 ④ D: 개인의 천부적 재능을 사회가 공유하는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⑤ E: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보아야 한다.

108)[20 ebs 수특, 주관식]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갑:** 모든 사람은 정치적 자유,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등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한편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직위를 개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하게 된다.

**을:** 한 영역 안에서 혹은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가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는 것을 복합 평등이라고 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공직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우선적인 의로 혜택, 자녀 취학의 우선권 등과 같은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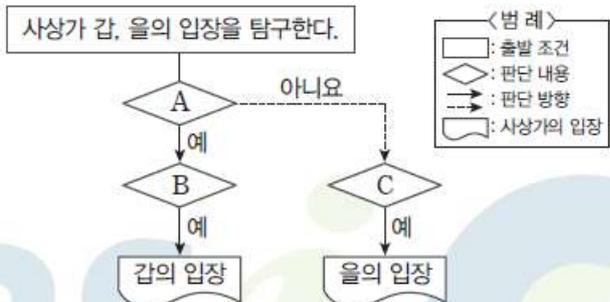
1 보기

- ㄱ. 갑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ㄴ. 갑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차등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분배하는 다양한 분배 원칙이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은 을과 달리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109)[20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다음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나 가치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이로 인해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을: 자유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자를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이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 ① A: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② A: 개인의 타고난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가?
- ③ B: 선천적인 사회적 지위는 부정적하므로 제도를 통해 교정해야 하는가?
- ④ B: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 ⑤ C: 국가의 시장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110)[21 ebs 수특] 골라.

갑: 개인에 대한 생활 조건의 우연성은 부르주아의 산물 가운데 하나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다. 개별 프롤레타리아는 이 우연적인 것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노동이 자기실현으로 전환되고, 단결한 개인들에 의해 총체적 생산력은 포섭된다. 이전의 역사에서는 어떤 특수한 조건이 우연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단계에서는 각 개인의 특수한 사적 생업 자체가 우연적인 것으로 된다.

을: 우연성의 영향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우연성이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라는 것에 근거한다. 그런데 개인의 자연적 자산들이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든 아니든 그 개인들은 그것들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그것들로부터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소유 권리를 지닌다. 그러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갑은 개인의 자질이 다양하게 발휘될 때 인격적 자유가 실현된다고 본다.
- ② 을은 자연적 자산의 편향에 따른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분배의 정당성 여부는 소유 과정의 정당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개인이 자기 노동의 산물 모두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사회적 우연성이 자율적인 의지에 기인한다고 본다.

111)[21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이 <사례>의 A국가의 정책에 대해 취할 적절한 입장만을 <보기>에서 갑, 을 사상가들이 <사례>의 A국가의 정책에 대해 취할 적절한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분배 정의에서 소유 권리 체계는 개인 간의 거래가 갖는 개인적 목표에 의해 구성된다. 초개인적 목표나 분배의 정형은 요구되지도 않는다. 오직 취득, 이전, 교정의 원칙을 요구하며, '그들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각자로부터, 그들이 선택된 바에 따라 각자에게'라고 말한다.

을: 분배 정의에서 복합 평등 체제는 전제와 정반대이기에, 독점의 효과가 아니라 지배의 축소에 주목한다. 복합 평등은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두 사회적 가치 간의 본원적 관계가 전혀 없을 때,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사례>

A 국가는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일정액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보기

- ㄱ.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의 고유한 의미에 상응하는 정책이므로 찬성한다.
- ㄴ. 소유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모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반대한다.
- ㄷ.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소수에 의해 소유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찬성한다.
- ㄹ. 국가가 노동의 결과를 점유하는 것은 강제 노동과 같은 것이므로 반대한다.

- |   |   |   |   |   |   |
|---|---|---|---|---|---|
| 갑 | 을 | 갑 | 을 | 갑 | 을 |
| ① | ㄱ | ② | ㄴ | ③ | ㄷ |
| ④ | ㄹ | ⑤ | ㄱ |   |   |

112)[21 ebs 수특] 골라.

갑: 입법의 유일한 목적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행복이다.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승인하는 공리성의 원리는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와 정부의 모든 정책에 서 유일한 기준이다.

을: 입법과 사회 정책의 정의 여부는 그것이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한 정의의 원칙들을 만족시키는지에 달려 있다. 정의의 두 원칙은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규제한다.

- ① 갑: 최소 수혜자의 더 나은 삶의 전망은 이익 총량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한다.
- ② 갑: 과거의 불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만이 유일하게 정당화 가능하다.
- ③ 을: 모두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정당하다.
- ④ 을: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해서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것은 정당하다.
- ⑤ 갑, 을: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교정적 정의(형벌, 사형제)(수특 7강)

113)[21 ebs 수특] 고르세용~

(가)	<p>갑: 공동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는 격언에 따라 이익 때문에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가 무너지면 지상에서 인간의 삶은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복법이다.</p> <p>을: 공동체 전체의 행복은 모든 법령의 일반적 목적이다. 만일 형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형벌은 범죄자의 행위와 그 외 일반인의 행위를 통제하고자 한다.</p>
(나)	

- ① A: 형벌은 교정과 본보기의 방식으로써 작용되어야 한다.
- ② A: 형벌은 최대한 효과적이면서도 관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③ B: 형벌의 집행을 통해 사회의 공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 ④ C: 형벌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 ⑤ C: 범죄 그 자체에 대한 보복을 형벌의 주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114)[18 ebs 수특, 주관식]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상당한 처벌은 상당한 고통이다. 또 한편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 그 자체 또는 쾌락에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그러므로 위법 행위의 이득에 대한 우세함을 유지하려면 처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을: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보기>

- ㄱ. 갑은 형벌이 그 자체로는 악이지만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 ㄴ. 을은 형벌의 유일한 목적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형벌의 목적을 범죄를 예방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형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범죄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 Zola Guide 갑, 을 사상을 구분할 수 있는 문구는?

115)[18 ebs 수특 변형, 주관식]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있는 대로 골라.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보호해 준다. 그의 형벌에서 그 자신이나 동료 시민들을 위한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도 먼저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것이 약속하는 이익에 의해 그를 형벌에서 면하게 하거나 또는 한 단계 경감시키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행복론의 꾸불꾸불한 길을 헤매 다니는 자에게 고통을 주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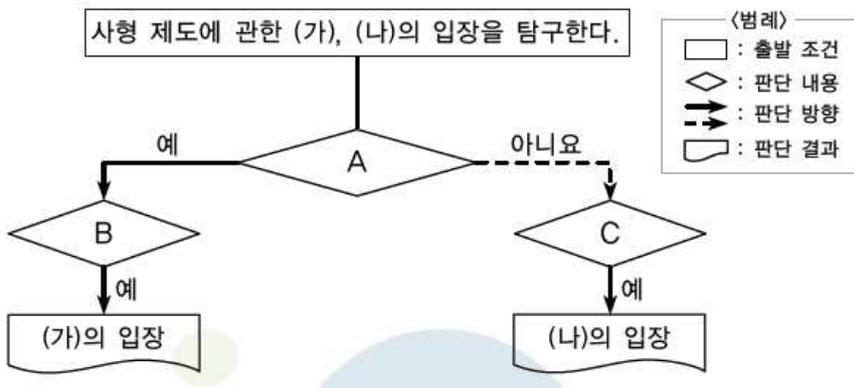
<보기>

- ㄱ. 형벌 제도는 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가?
- ㄴ. 보복법만이 형벌의 양과 질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 ㄷ. 사형은 인간성을 위협하는 가혹 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인가?
- ㄹ.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116)[15 ebs 수특] (가), (나)의 입장을 아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가) 모든 인간은 살인자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사회 계약은 시민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다.

(나) 사회 조직은 구성원 모두의 총의로 움직인다. 그러나 사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탈취할 권능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겠는가?



<보기>

- ㄱ. A: 국가는 시민들이 생명 보전을 위해 사형에 대한 권리를 지니는가?
- ㄴ. B: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 ㄷ. C: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응보를 위해 사형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 ㄹ. C: 모든 인간 존재는 자신의 생명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니는가?



119)[19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형벌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을: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비판 방향	비판 내용
①	갑이 을에게	형벌이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모르고 있다.
②	갑이 을에게	형벌이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하여 부과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③	갑이 을에게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을 고려하는 형벌임을 모르고 있다.
④	을이 갑에게	형벌이 범죄의 해악 정도보다 무겁게 부과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⑤	을이 갑에게	사회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형벌의 질과 양을 제시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120)[20 ebs 수특, 주관식]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처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보호해 준다.
(나)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처벌은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 보기 】

ㄱ. 형벌은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필요악임을 모르고 있다.  
 ㄴ.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 존중의 차원에서 폐지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ㄷ. 형벌의 질과 양은 동해 보복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ㄹ. 범죄자의 인격을 공공선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121)[20 ebs 수특]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이와 유사하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을:**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強度)만을 가져야 한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병:** 공적인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이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生)이라 해도 생과 사(死) 사이에 동종성은 없으며,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 ① 갑: 사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② 을: 형벌은 공공의 선(善)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 ③ 병: 범죄자는 자율적으로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 ④ 갑, 을: 사형 제도는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
- ⑤ 갑, 병: 형벌의 양과 질은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22)[21 ebs 수특] 고르셈!

(가)	<p><b>갑:</b> 법은 일반 의지로부터 나온다. 법의 목적은 전원의 최대 행복이다. 이 목적은 개개인이 생명권을 비롯한 자연권 전체를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이다.</p> <p><b>을:</b>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개인이 사회에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사형은 한 국가가 한 시민을 죽이는 것이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벌이는 전쟁이다.</p> <p><b>병:</b> 법은 실천 이성이 외적으로 법칙을 수립해 개인을 강제하는 권리의 상징이다. 보복법에 따르는 형벌의 권한은 공적 이성에 있다. 그러함에도 형벌 받기를 의욕하는 범죄자의 계약을 그 권한의 기초로 삼는 것은 범죄자 자신을 재판관이 되게 하는 것이므로 법의 왜곡이다.</p>
(나)	

- ① A: 사형은 생명 보존의 사회 계약을 이행하는 형벌임을 모르고 있다.
- ② B: 형벌 부여의 타당한 척도는 범죄자의 범행 의사에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C: 시민 사회의 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④ E: 어떠한 국가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 ⑤ D, F: 형벌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국가와 시민의 윤리(1) - 국가관(수특 8강)

123)[16-10교-11, 윤사,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자연의 산물들 중 하나인 국가는 최고선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이다.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고, 삶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통치 형태이다. 개인으로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나 최선의 생활이란 덕이 있는 생활이다.

<보기>

- ㄱ. 국가에 대한 복종 의무는 사회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ㄴ. 개인과 국가는 모두 선의 실현을 목표로 추구한다고 본다.
- ㄷ. 국가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본다.
- ㄹ. 개인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124)[21 ebs 수특] 갑이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됨.

갑: 국가는 이미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최고 단계에 도달한 완전한 공동체이다.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었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 가정이나 부락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모든 국가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떤 사물의 본성은 그 사물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전 공동체들의 최종 목표이다. 그 밖에도 사물의 최종 원인과 최종 목표는 최선의 것이며, 자급자족은 최종 목표이자 최선의 것이다.

을: 국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된 것이다. 인간은 한 사람 또는 합의체를 임명하여 자신들의 인격을 위임하고, 그 위임받은 자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든 개개인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개개인의 판단을 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동의나 화합 이상의 것이며, 신약을 맺음으로써 인간이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되는 참된 통일이다.

X: 국가를 개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정도

Y: 국가를 선(善)의 실현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로 보는 정도

Z: 통치 권력이 개인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는 정도

125)[19 ebs 수특, 윤사]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모든 사람은 본래 자유로우며, 그 자신의 동의를 제외한 어떤 것도 그를 지상의 권력에 복종시킬 수 없다. 그런데 동의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된다. 명시적 동의를 통해 개인은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정부의 신민이 된다. 명시적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 된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국가는 개인의 재산 보호와 공공선의 실현을 추구한다.		√			√	√
국가 권력을 없애거나 바꾸는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		√	√
국가의 법률에 대한 정치적 복종의 의무는 계약을 통해 발생한다.			√	√	√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		√

126)[21 ebs 수특]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갑: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社稷)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천자가 되고, 천자의 신임을 얻어야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임을 얻어야 대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제후를 바꾸고, 제사의 때를 어기지 않고 잘 지냈음에도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사직을 바꾼다.

을: 인간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만약 입법부가 야심, 공포,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 자유, 자산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장악하거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민이 그들에게 맡긴 권력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①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는 통치자는 교체될 수 있는가?
- ② 통치자는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 ③ 통치자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가?
- ④ 정당하게 세습된 권력은 민주적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가?
- ⑤ 통치자의 권력은 개인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이후에 생겨나는가?

127)[19 ebs 수특, 윤사]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의의 의무는 정의로운 현행 제도를 우리가 지지하고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나친 희생이 없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직 확립되지 못한 정의로운 체제를 세워 갈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를거나 그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로운 경우 모든 사람은 현존 체제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할 자연적 의무를 갖습니다.

- ① 정의의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② 정의로운 사회 체제에서는 정의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 ③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적 의무이다.
- ④ 부정의한 법일지라도 항상 준수해야 하는 것은 자연적 의무이다.
- ⑤ 자연적 의무는 의무를 지기로 약속한 사람들에게만 구속력을 갖는다.

128)[20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바르게 답한 것은?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이다. 내가 나 스스로를 통치하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것은 너도 너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하고 그의 모든 활동을 나와 마찬가지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목적은 자신의 안전 보장과 생명 보존에 있다. 따라서 설령 한 인간이 말 또는 기타 표시에 의해서 이 목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의 의지나 의도였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질문	대답
①	인간은 이성을 지닌 선한 존재인가?	예
②	통치권자는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예
③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인가?	아니요
④	국가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형성 되는 것인가?	아니요
⑤	안정적인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분할되지 않아야 하는가?	아니요

129)[20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 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보기>

- ㄱ. 국가는 자연 발생하는 공동체의 한 형태이다.
- ㄴ. 인간이 지닌 자연권은 양도될 수 있는 것이다.
- ㄷ. 인간의 모든 권리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 ㄹ.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이익을 보장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130)[20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누므로[兼愛交利] 필히 상을 받지만, 하늘의 뜻에 반하는 자는 서로 차별하고 반목하며 적대시하므로 필히 벌을 받는다. 하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자는 차별 없이 사랑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윗사람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을: 인간의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이다. 인간은 상을 좋아하고 벌을 싫어하므로 이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상벌의 주도권이 신하에게 있으면 사람들이 신하를 따르게 되므로 군주는 상벌을 주도해야 한다.

- ① 갑: 군주는 백성과 상호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
- ② 갑: 군주는 타국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
- ③ 을: 군주는 법이 아닌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 ④ 을: 군주는 인간의 선한 본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⑤ 갑, 을: 군주는 하늘의 뜻인 사랑을 바탕으로 통치해야 한다.

131)[20 ebs 수특, 주관식]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기반 위에 세워졌다.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 숭고한 노력을 한 조상들과 희생자들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을: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하찮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 보기 】

- ㄱ. 갑은 통치자가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다고 본다.
- ㄴ. 을은 통치자가 부덕한 경우에도 피치자의 불복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 ㄷ. 갑, 을은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피치자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통치자가 피치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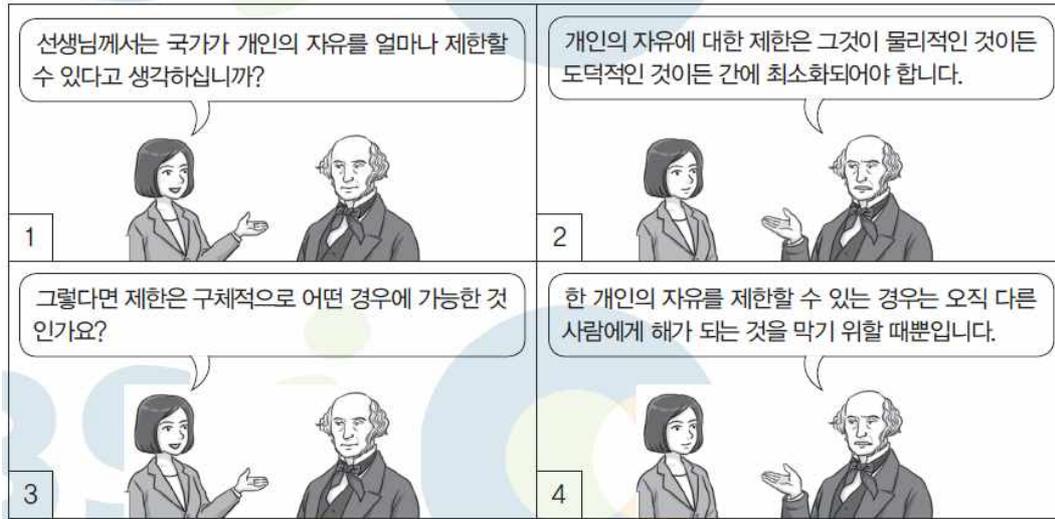
132)[15 ebs 수특] B의 입장에서 A에 대해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사상	A	B
의미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는 사상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주장하는 사상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시대 국왕과 신하가 경서를 읽고 토론한 경연 제도</li> <li>• 조선 태종 때 설치한 신문고 제도</li> <li>• 조선 세종 때 실시한 여론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 분립 제도</li> <li>•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정치하는 입헌 제도</li> <li>•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선거 제도</li> </ul>

- ① 도덕적인 공동체 수립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백성이 주권자이며 정치의 주체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③ 백성을 이끌어 갈 통치자의 자질과 덕성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 ④ 통치자의 우선적 임무가 백성의 경제적 안정에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⑤ 백성의 뜻을 반영해야 위민(爲民)의 정신이 실현됨을 간과하고 있다.

133)[20 ebs 수특] 그림은 어느 사상가와와 가상 인터뷰 장면이다.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Zola Guide 이 사상가가 누군지 모르면 공부량이나 방법을 수정하길 진심 권면함. 어떻게 바꾸어야지 하는지 모르겠다면 상담 받을 것.



- ① 국가는 개인의 독립성에 대해 최소한으로만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악 금지의 원칙을 따를 때만 정당하다고 본다.
- ③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제가 정당하다고 본다.
- ④ 개인의 행동이 본인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국가는 그 행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 ⑤ 사회적으로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개인에게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고 본다.

134)[21 ebs 수특, 주관식] 고르면 됨.

천하의 가장 큰 해는 무엇인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다수가 소수를 폭압하며,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이는 것이 천하의 큰 폐해이다. 또한 임금 된 자가 은혜롭지 않고, 신하 된 자가 충성스럽지 않고, 아버지 된 자가 자애롭지 않고, 자식 된 자가 효성스럽지 않은 것이 천하의 큰 폐해이다. 이러한 폐해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데 있다. 천하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행위는 평등주의[兼]가 아니라 차별주의[別]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서로 차별하는 자들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천하에 큰 해독을 끼치는 자들일 것이다.

- 보기
- ㄱ. 백성에게 은혜롭지 않은 군주는 구성원의 안정된 삶을 위협할 수 있다.
  - ㄴ. 자국에 대한 사랑을 확대하여 타국에 적용하는 인(仁)을 추구해야 한다.
  - ㄷ. 만인은 국가 경계를 넘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돌보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ㄹ. 군주는 백성들이 사랑을 나누며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통치해야 한다.

135)[21 ebs 수특] ㉠에 들어갈 말은?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다. 왜냐하면 입법권은 모든 구성원이 결합시킨 권력을 입법자인 개인이나 집회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기 전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공동체에 양도한 것 이상의 권력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고대의 어느 사상가는 “이테아를 통찰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 ① 통치자의 권한은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로 권리가 위임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정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는 사회가 바람직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무지한 다수의 민주정보보다 현명한 철인의 통치를 추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만인이 투쟁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법치가 실현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통치자는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시민 불복종(수특 8강)

136)[19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불의의 희생이 될 상황이라면 그 법을 어겨라. 양심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하라.</p> <p>을: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p>
(나)	

- ① A: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만이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② A: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③ B: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부정의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 ④ C: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만이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⑤ C: 극단적으로 부정의한 사회에서도 시민 불복종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137)[16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만 '√'를 표시해봐!

- \* 만일 우리가 헌법을 사회 협동 체제의 기본 헌장으로 생각한다면 헌법이 정의롭고 그 운용에서 오는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계획일 경우, 그리고 제정된 법규나 정책이 일정한 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공정한 경기 운영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 \* 법 체계가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는 법 체계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점	니가 √ 표시해!
(1) 다수결로 정해진 모든 법은 정의로우므로 복종해야 한다.	
(2)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복종하지 말아야 한다.	
(3) 법 체계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우리는 그 법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	
(4)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에 대한 합법적인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법에 불복종할 수 있다.	

138)[21-4교,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공정한 주목을 받으며 참여하는 것으로 공공 연설에 비유할 수 있다. 이는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로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된다.

< 보 기 >

- ㄱ.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로 사회를 위협하는 위법 행위이다.
- ㄴ. 시민 불복종은 완전히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정치 행위이다.
- ㄷ.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정의관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청원이다.
- ㄹ.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39)[16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이)란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에서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그것은 정상적인 저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소 고의적인 부정의가 행해질 경우, 그리고 그 부정의가 시민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일 경우,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경우에 유사한 방식으로 저항하려는 성향이 일반화되어도 합당한 결과를 가지게 될 경우에 정당화된다.

< 보 기 >

- ㄱ.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을 거부하였다.
- ㄴ. 인권을 부인하는 독재 체제를 타도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 ㄷ.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생활 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시위를 했다.
- ㄹ. 민주 국가에서 특정 종교의 의례를 금지하는 법을 일부러 따르지 않았다.

-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        |

140)[21 ebs 수특] 고르세용~

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것은 다수에게 알려려는 시도이거나, 의원을 설득하려는 것이거나, 서둘러 내려진 결정에 대해 재고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입니다. 법에 저항하지 않으므로써, 비폭력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존중합니다. ...**(중략)**... 시민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단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단한 도덕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각 사회의 시민 불복종이 그 사회에 가져올 손익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① 다수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법이나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항상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부정의한 법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 ④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효용성이 아니라 절대적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한다.
- ⑤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방법보다 언제나 우선한다.

141)[21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몽땅 다 골라!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른 어떤 것을 시민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보기 】

- ㄱ. 시민 불복종은 결과주의적 접근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가?
- ㄴ.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면서 행해져야 하는가?
- ㄷ.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ㄹ.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보다 합법적인 수단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가?

# 4단원

## 과학 기술과 윤리(수특 9강)

142)[20 ebs 수특,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특히 사람들이 옳다고 신봉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하기 때문이다.

### 보기

- ㄱ. 과학 기술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 ㄴ.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는 도구일 뿐이다.
- ㄷ. 과학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 ㄹ.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경우 인간은 과학 기술에 조종당할 수 있다.

143)[개념 확인, ebs 활용]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0개~모두)

- [ A ] --- '예' ---> 복잡한 현상을 단순하고 일반적인 인과 법칙으로 환원시킨다.
- ① 생명현상을 물리학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② 체험되는 자연을 인간의 이성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 ③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단일한 것으로 축약할 수 있는가?
- ④ 구체적이고 생생한 인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하는가?
- ⑤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은 기계적 인과 관계로 설명가능한가?

144)[14 ebs 수특, 제시문 격하게 편집] 다음은 갑과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이 을보다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선생님은 원자 폭탄을 만들었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을: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그걸 내가 터트렸냐? 터트린 놈들한테 그 얘기를 해야지 왜 나한테 하나? 어떤 놈이 칼로 살인했으면 칼로 살인한 놈이 살인자지, 칼 만든 놈이 살인자냐?

갑: 하지만 만약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원자 폭탄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구는 평화로운 원자 에너지 활용 방안에 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을: 정 그러면 칼 만드는 놈들한테 가서 '영구적인 세계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와라!!!

- ① 과학자는 과학 기술 자체에 대한 책임만을 져야 한다.
- ② 과학자는 참 또는 거짓의 인식론적 대상을 연구해야 한다.
- ③ 과학자는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과학 연구에 몰두해야 한다.
- ④ 과학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해야 한다.
- ⑤ 과학자에게 현실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5)[17 ebs 수특]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본래 인간에게 구비된 이성은 어떤 적절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이었다. 그러나 근대적 이성은 주관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즉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만을 유일한 가치 기준으로 삼는 기술적인 도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고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이성이 이론적인 계산을 토대로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제시하여 인간 및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도구화되어 버렸다.
(나)	 <p>현대인들이 인간성을 회복하여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p> <p>㉠</p>

- ① 비판적 이성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 ② 실증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를 개선해야 합니다.
- ③ 쓸모 있는 것이 진리라는 사고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 ④ 가치 중립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⑤ 효율성과 계산 기능성의 원리를 토대로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146)[18 ebs 수특, 주관식] 제시문의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현대의 문제는 기술을 사회의 지배 원리로 떠받드는 데 있습니다. 기술은 이성을 사용하여 사물을 지배하고 정신적인 것조차 설명하고 질적인 것을 양적으로 환원시킬 뿐 아니라, 이제는 기술이 새로운 도덕의 기준이 되고 기술이 도덕의 심판자가 되며 새로운 도덕의 창조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 기술주의 문화에서는 기능적 사고가 그 기저를 이루고 있어 모든 가치 판단이 조작주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기술주의 신앙의 위험은 과학 기술의 진보를 통하여 인류가 직면한 모든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보기>

- ㄱ. 과학적 지식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ㄴ.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인간 삶의 정신적 풍부함을 축소시킨다.
- ㄷ. 과학 기술 지상주의는 인간의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 ㄹ. 도덕규범의 가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사고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147)[21 ebs 수특]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개념적으로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실에는 이미 우리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학의 대상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자의 사실 판단은 그의 가치 판단에 의존해 있다. 과학자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역시 자신의 가치 판단에 의존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자신의 활동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려야 한다.

- ①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물의 진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가?
- ② 과학자는 규범적 평가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가?
- ③ 과학자의 과학적 사실 판단 과정에 가치 판단이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한가?
- ④ 과학자의 연구 활동은 현실적으로 가치와 분리되는 사실의 영역에 속하는가?
- ⑤ 과학자의 연구 과정과 결과는 모두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148)[19 ebs 수특, 주관식]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 행위의 결과이며 인간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기술은 스스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악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기술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기술 그 자체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 중립적이다. 현대 기술이 인간을 구속하고 지배하고 있으나 인간의 정신적 각성을 통해 기술에 의해 초래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

을: 기술은 단순한 인간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기술은 주어진 사물들을 생산, 가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의 삶의 방식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체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본질 속에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변형시킬 수 있는 위험이 깃들어 있다. 현대 기술 문명의 시대에 우리는 기술을 통해 자연과 세계를 하나의 기술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기술의 대상으로 만들어 간다.

Ⅰ 보기 Ⅰ

- ㄱ. 갑은 기술이 인간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본다.
- ㄴ. 갑은 인간이 기술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율적 인격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 ㄷ. 을은 기술이 자연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본다.
- ㄹ. 갑, 을은 현대 기술이 인간을 종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정보 사회와 윤리(수특 10강)

149)[15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갑: 정보 복지 정책은 불필요합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일부 사람들만이 인터넷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 확산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의 채택과 활용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결합되면서 정보 격차 현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 인하와 편의성 증대 등으로 정보 격차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을: 정보 복지 정책은 필요합니다. 기술의 혁신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기술은 항상 가격이 비싸서 상류층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활용의 계층 간 격차는 결코 좁혀지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은 기존의 정보 격차가 완화되기 전에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술의 격차가 정보의 격차를 낳고, 이것이 빈부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복지 정책이 요구됩니다.

<보기>

- ㄱ. 정보 격차를 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는가?
- ㄴ.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정보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는가?
- ㄷ. 정보 격차 현상의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반대하는가?
- ㄹ. 정보 격차 현상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과도기적 현상으로 파악하는가?

150)[18 ebs 수특]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현대 정보 사회는 '빅 브러더'가 통제하는 사회이거나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판옵티콘'과 유사하다. 현대 정보 기술은 정보와 권력을 독점한 통치자가 교묘한 방식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고도의 감시 장치를 바탕으로 피감시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피감시자들은 항상 감시와 통제를 받는 피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보기>

- 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 ㄴ. 정보 소통에서 일방향성이 아닌 쌍방향성을 추구한다.
- ㄷ. 정보의 생산·유통을 소수 집단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한다.
- ㄹ. 첨단 정보 기술 체계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151)[20 ebs 수특]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플라톤의 “국가”에는 기계스의 반지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기계스는 우연히 금반지 하나를 얻게 되는데, 이 반지의 보석 부분을 밀로 돌리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 위로 돌리면 다시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이 반지를 이용하여 왕이 사는 곳으로 숨어들어가서 왕을 살해한 다음, 왕국을 장악한다. 이 이야기에서 기계스의 반지는 익명성을 상징하며, 이야기의 주인공인 기계스는 익명성을 악용한 유형에 해당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기계스의 반지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

- 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 ② 익명을 사용하여 낯선 사람들과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 ③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 ④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정치적 비판이나 내부 고발을 손쉽게 한다.
- 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도덕적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다.

152)[19 ebs 수특]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이버 공간은 확장될수록 점점 더 대중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사이버 공간은 점점 더 전 체주의적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 대중에게 보편적인 성격의 문화의 장(場)인 사이버 공간 은 기준도 중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내용 없이 비어 있어서 오히려 모든 것을 받 아들인다. 사이버 공간은 상호 연결, 가상 공동체의 창조, 공동의 지적 자산의 구축을 통 해 궁극적으로 인류의 창조의 장이 될 것이다.

을: 사이버 공간은 우리 시대의 사회적 산물이다. 사이버 공간은 자유로운 상호 작용의 가능 성을 열었으나 주로 인터넷 기술을 창조한 사람들과 이에 능숙한 사람들의 특정한 요구와 필요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자본을 가진 기업은 기술의 변화에 개입하고 현 실 세계와의 상호 작용보다는 기술의 활용에 집중하여, 사이버 공간은 자본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것이다.

- ① 갑은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함으로 인해 정보 독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사이버 공간이 인간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이라고 본다.
- ③ 을은 사이버 공간의 기술은 모든 이용자의 필요를 평등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사이버 공간이 경제 논리에 의해 지배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 ⑤ 을은 갑과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로운 인간관계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153)[19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기술의 발달은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정보의 이동을 수월하게 만들었다. 사람 들은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대인을 ‘디 지털 유목민(digital nomad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현대판 유목 물품들은 사람들을 장소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밤과 낮, 일터 와 가정의 자연스러운 구분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일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또한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며 디지털 유목민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디지 털 기술력과 자본력을 지닌 소수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보 기술의 발달이 모든 사 람을 노동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 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은 ㉠ 고 생각한다.

- ① 정보화 시대에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정보 기술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③ 정보 기술의 발달이 노동 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정보 기술이 삶의 편리성과 정보 이동의 신속성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⑤ 정보화 시대에 경제적 빈부 격차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154)[21 ebs 수특] 핵심 쟁점은?

갑: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삶이 점차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 기술은 대중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때문에 민주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을: 정보 기술로 온라인을 통해 정치에 쉽게 참여하는 등 기술이 주는 편리함이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편리함에 빠져 기술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 기술은 권력의 대중 지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갑: 아닙니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 기술은 지배 권력이 구성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자 판옵티콘'의 실현을 경계해야 합니다.

- ① 정보 기술은 대중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가?
- ② 정보 기술은 수평적·다원적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가?
- ③ 정보 기술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가?
- ④ 정보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정보 기술의 긍정적 영향만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환경과 윤리(수특 11강)

155)[21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가) 갑: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심미적 관점으로도 살펴봐야 한다.  
 을: 왜고 감수 능력은 어떤 존재가 최소한 고통받지 않을 이익 관심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병: 모든 생명은 자기 보존과 행복을 향하여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인 활동의 단일한 체계라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 보기
- ㄱ. A: 대지의 모든 생명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 ㄴ. B: 왜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 ㄷ. C: 종의 차이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인가?
  - ㄹ. D: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가?

156)[14 ebs 수특 활용] 그림의 (가)~(다)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셈.(0개~모두)

근대 이후 서구의 자연관을 탐구한다.

- ① (가) : 자연에는 내재적 가치가 존재하는가?
- ② (가) :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가?
- ③ (나) : 전체로서의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해야 하는가?
- ④ (나) :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가?
- ⑤ (다) : 자연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재구성된 것인가?

157)[13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가 동의할 수 있는 진술문을 있는 대로 고르셈.(0개~모두)  
 물질적 욕제와 비물질적 영혼의 혼합체인 인간과 달리,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 동물도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이 아닌 존재의 '감각'이란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경험도 가능하지 않다.

- ①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이다.
- ② 인간과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 ③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극복해야 한다.
- ④ 이성적 사고 능력은 도덕성의 성립 조건이다.
- ⑤ 도덕성은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경험은 이성과 무관하다.

158)[13 ebs 수특+14 ebs 수특] '칸트'가 긍정할 진술문을 있는 대로 고르셈.(0개~모두)

- ① 고통의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없으므로 도덕적으로 평등하다.
- ②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은 일이다.
- ③ 동물 학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 ④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가진다.
- ⑤ 유일한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159)[21 ebs 수특] 어떻게 푸는지 알지?

(가)	갑: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을 느끼며 욕구, 지각, 정체성, 목표 등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며 수단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을: 대지 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인류의 역할은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병: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자체로서 존재한다. 만일 어떤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존재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지닌다.
(나)	

- ① A, C: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님을 간과한다.
- ② A, F: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B, D: 인간은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B, E: 식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⑤ D, F: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160)[15 ebs 수특 활용]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p>갑: 철학은 도덕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는 지구를 파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즉, '죽은 것(무생물)'으로 간주해 왔던 지구도 사실은 일종의 생명적 성질을 소유하며, 따라서 우리는 지구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p> <p>을: 서양의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은 폐기물을 바다나 대기 중에 버리는 일, 생태계의 파괴하는 일, 자원의 고갈하는 일은 동료는 물론이고 미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가르쳐 왔다. 이 정도에서 전통적인 도덕은 다른 어떤 것의 보충 없이도 우리의 생태적 관점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p>
(나)	

<보기>

- ㄱ. A: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도덕 규범이 필요한가?
- ㄴ. B: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새로운 환경 윤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 ㄷ. C: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 ㄹ. D: 인간과 자연은 평등한 윤리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161)[18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무생물적 자연'을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이들은 지구와 인간 사이에는 지구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깊고,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껴 왔다. 철학은 도덕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는 지구를 파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즉, '죽은 것(무생물)'으로 간주해 왔던 지구도 사실은 일종의 생명적 성질을 소유하며, 따라서 우리는 지구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보기>

- ㄱ. 대지의 가치를 유용성의 측면에서만 검토하는 것은 잘못이다.
- ㄴ. 자연 또는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 ㄷ. 도덕적 무능력자는 그 자체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없다.
- ㄹ.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다.

162)[16 ebs 수특] 갑, 을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갑: 감정과 이성이 없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의 섭리에 의해서 동물들은 자연적 과정 속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명 지어졌기 때문이다.

을: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인간 안에서도 둔화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 소질이 점점 약화되어서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

- ㄱ. 갑은 신이 인간과 동물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했다고 본다.
- ㄴ. 을은 인간이 동물에 대한 간접적 도덕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 ㄷ. 갑, 을은 인간을 동물보다 우월하고 귀한 존재라고 본다.
- ㄹ. 갑, 을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동물을 비이성적 존재로 본다.

163)[16 ebs 수특]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가)	<p>갑: 어떤 개체가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존재의 이익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들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이다.</p> <p>을: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아기에게 일정량의 고통을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소나 말에게 동일한 양의 고통을 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p>&lt;범례&gt;</p> <p>A : 갑만의 입장</p> <p>B :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 을만의 입장</p> </div>

< 보기 >

- ㄱ. A : 삶의 주체인 동물은 다른 동물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
- ㄴ. B :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모든 동물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 ㄷ. B : 식용을 위해 공장식으로 길러지는 동물 사육은 금지될 필요가 있다.
- ㄹ. C : 인간의 고통은 동물이 느끼는 동일한 양의 고통보다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166)[교 응용] 표는 어느 서양 사상가를 상대로 한 가상 설문 조사 결과이다. ㉠, ㉡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0개~모두)

	질문	응답	
		예	아니요
(1)	인간 중심주의적 환경 정책은 환경 파괴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뿐인가?	✓	
(2)	인간은 모든 자연적 존재들과 공생할 때 '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가?	✓	
(3)	㉠	✓	
(4)	㉡		✓

<보기>

- ㄱ. ㉠: 모든 생명의 번영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가?
- ㄴ. ㉠: 인간은 자연의 주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 ㄷ. ㉡: 개별 생명체의 존속이 생태계의 건강보다 중요한가?
- ㄹ. ㉡: 동물과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점에서 동등한가?

167)[17 ebs 수특 응용] 다음 대화에서 학생들이 모두 적절한 대답을 했다고 할 때, A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센세 : A 사상가에 대해 발표하데쓰까?

학생 1 :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했데쓰.

학생 2 :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했데쓰.

학생 3 :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라고 했데쓰.

<보기>

- ㄱ.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은 상호 의존적 체계의 일부이다.
- ㄴ. 인간은 생명체의 삶의 조건인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 ㄷ.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들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ㄹ. 인간은 다른 유기체에 비하여 가치 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 ㅁ.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갖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68)[20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골라!

'큰 자아실현'이라는 규범은 기본적으로 쾌락적 기쁨을 추구하는 고립된 자아로 정의되는 근대 서구적 자아를 넘어섰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립되고 협소한 경쟁적 자아로 보지 않고 가족과 친구,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과 동일시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큰 자아실현'은 거기에 더해 인간을 넘어 모든 자연과의 일체화를 요구한다. 생물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고 번성하여, 결국 '큰 자아실현'의 맥락 안에서 자기 나름의 개별적인 삶을 전개하고 자아실현에 이르게 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직관은 생태권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와 모든 실재가 상호 연관된 전체의 부분들로서, 본래적 가치에서 동등하다는 것이다.

보기

- ㄱ. 모든 유기체가 생명의 연결망 속에 본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 ㄴ.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 ㄷ.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존재는 평등한 도덕적 가치를 소유한다고 본다.
- ㄹ. 인간은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상호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생할 때 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169)[19 ebs 수특]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단순한 생존은 식물도 지니고 있는 기능이고, 감각을 느끼며 움직이는 것은 동물도 지니고 있는 기능이다. 영혼의 이성적 능력만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다.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은 스스로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기능에 종속되기도 한다. 이성의 실현이라는 인간의 기능 실현이 다른 것들보다 상위의 목적이다.

을: 우리가 인간을 먹지 않는 것은 인간이 지닌 고유한 가치 때문이다. 즉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지 인간이 도덕 행위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인간뿐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몇몇 포유류는 자기의 삶을 사는 데 요구되는 자격을 지녔다. 따라서 그들을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해야 하며 우리의 자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병: 우리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무심히 따면 안 된다. 그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생명에 대해 과오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가치 있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괜찮다고 경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살아 있는 어떤 것에도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 비로소 윤리적이다.

- ① 갑이 을에게: 식물은 감정이 없으므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② 을이 갑에게: 인간 이외의 존재가 도덕적 권리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③ 병이 갑에게: 다양한 종(種) 간의 도덕적 지위의 동등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갑이 을, 병에게: 동식물은 유용성에 따라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⑤ 병이 갑, 을에게: 생명 공동체의 존속이 개체의 복지보다 우선함을 모르고 있다.

170)[18 ebs 수특] 표는 어느 서양 사상가에 대한 한 학생의 질문 응답지이다. 응답이 모두 옳다고 할 때, ㉠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	질문	응답	
		예	아니요
(1)	일부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갖는가?	V	
(2)	성장한 포유동물을 사냥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인가?	V	
(3)	꽤 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한 조건인가?		V
(4)	㉠	V	

- ①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잘못인가?
- ② 정상적인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③ 인간 이외의 성장한 포유동물을 도덕적 무능력자로 간주해야 하는가?
- ④ 인간과 동물의 이익의 합을 최대로 증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위인가?
- ⑤ 삶의 주체는 감정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희망과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인가?

171)[17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갑: 모든 생물이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도덕적 판단을 요청한다. 모든 도덕적 행위자는 생명체가 지닌 선을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우리는 야생 동식물을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이해해야 한다.

을: 지구에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의 복지와 번영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의 가치는 인간에게 유용한가의 여부와는 별개이다. 지구 상 생명 형태들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들의 실현에 기여하며, 따라서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 인간은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나)**

갑, 을의 윤리적 입장을 탐구한다.

아니요

예

예

예

아니요

예

갑의 입장

을의 입장

〈범례〉

- : 출발 조건
-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 판단 결과

- ① A: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연에 대해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 ② B: 인간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상호 의존 체계에 구속되어 있는가?
- ③ B: 인간은 생명체의 조건인 생태계를 조작하거나 개조하지 말아야 하는가?
- ④ C: 인간은 전일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파악해야 하는가?
- ⑤ C: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한가?

172)[19 ebs 수특]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모든 존재는 자신의 본성적 기능과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런 의미에서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식물의 선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동물의 선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인간의 선은 생각하고 숙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p> <p>을: 모든 실재는 정신과 육체라는 두 가지로 환원될 수 있다. 정신의 영역에는 사고, 감각, 의식이 포함되며 육체의 영역에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 물리적인 영역은 완전히 기계적이기 때문에 의식이 결핍되어 있다. 동물과 식물은 살아 있기는 하지만 의식이 결핍된 존재이다.</p> <p>병: 모든 생명체는 의식이 있든 없든 자기 보존과 행복을 향하여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 활동의 단일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성장, 발전, 번식을 지향하는 존재는 고유한 선을 지닌다.</p>
(나)	

- ① A: 이성을 소유한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② B: 이성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명체들 간에도 위계가 있다.
- ③ C: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④ D: 식물과 동물은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적 존재이다.
- ⑤ E: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본질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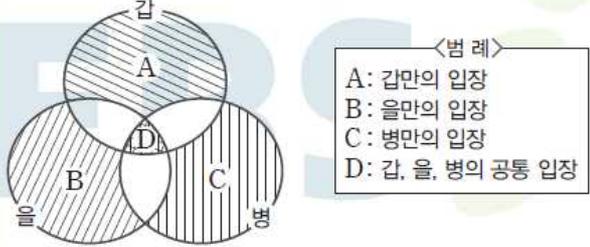
173)[16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소한 몇몇 포유류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지각과 기억을 하고 미래가 있음을 안다. 동물들 또한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동물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처럼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공동체 자체도 보존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고 있다
- ②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경시하고 있다
- ③ 동물, 식물, 물, 토양을 포함하도록 공동체의 영역을 넓혀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고통을 느끼는 모든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님을 경시하고 있다
- ⑤ 개체보다 생태계 자체를 강조하면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174)[21 ebs 수특] 옳은 것을 골라.

(가) 갑: 하나의 존재는 개체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인간은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큰 자아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을: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볼 때 한 개체가 어떤 종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병: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지니며, 외적 활동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고, 자신의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 주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

(나) 

- ① A: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방식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② B: 유정성을 지닌 존재는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③ C: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은 내재적 가치가 있다.
- ④ C: 인간이 생태계를 개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⑤ D: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175)[21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 중에서 한 명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다른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동물을 잘 길들여 자신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식량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동물의 경우 모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유용하다. 동물을 이용한 옷과 도구는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을: 어떤 개체가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존재의 이익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들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이다.

- ①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 ② 동물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하는가?
- ③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하는 것은 잘못인가?
- ④ 동물과 식물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⑤ 동물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 5단원

## 예술과 윤리(수특 12강)

zola 문제

176)[19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갑: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을 위해 도모하려 하지 눈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 귀가 즐거이 여기는 것들, 입이 달게 여기는 것들, 몸이 편히 여기는 것들을 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과 같은 것들은 백성들이 입고 먹는 재화를 축내고 빼앗기 때문에 어진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을: 인(仁)의 실질적인 내용은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며 의(義)의 실질적인 내용은 손윗사람을 잘 따르는 것이다. 악(樂)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게 되면 샘솟듯 생겨나게 되고, 한번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그만둘 수 없게 되고, 그만둘 수 없게 되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을 구르고 손을 저으며 춤추게 될 것이다.

### 보기

- ㄱ. 갑은 통치자의 예술 활동이 백성의 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 ㄴ. 을은 예술 활동이 사회와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음악이 도덕적 행위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 ㄹ. 갑, 을은 음악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본다.

177)[16 ebs 수특, 주관식] 다음 관점에서 지지할 주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쾌락은 항상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이해 관심(사적 욕구)과 무관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바라봄, 즉 관조함이 미적 판단을 순수하게 자유로울 수 있게 한다. 아름답다는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할 것으로 요청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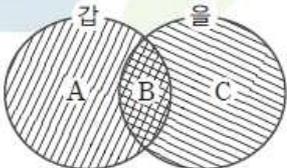
- ㄱ.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 ㄴ. 아름다움과 도덕성은 모두 이해 관심과 무관하다.
- ㄷ. 아름다움의 가치는 효용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 ㄹ.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직접적으로 도덕적 목적을 추구한다.

178)[17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가는 실천에 의해 사회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 존재를 긍정하는 대신 부정과 파괴를 일삼는 예술은 나쁜 예술로 여겨져 왔다. 나쁜 예술은 일반적으로 '저속한 작품(kitsch)'이라 불리는 것이거나 '나쁜 취미(bad taste)'의 산물이다. 저급한 대중적 호소에 목적을 두는 예술은 순수한 예술 작품에 비해 감동과 울림이 뒤떨어진다. 나쁜 취미에 기초한 예술은 사회성이 배제된 개인적 유희의 산물로 개인과 사회를 타락의 길로 몰아갈 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중들은 변덕스럽고 오락적인 것을 좋아하며, 고급스러운 것을 원하기보다 저속하거나 나쁜 취미의 산물을 더 원한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그러한 대중들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고 생각한다.

- ① 예술가들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② 예술의 대중화가 작품의 질을 향상시킴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예술의 목적은 대중들을 만족시키는 것임을 경시하고 있다
- ④ 예술은 대중들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예술의 대중화가 인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시하고 있다

179)[20 ebs 수특] 골라!

(가)	<p>갑: 예술가는 종교적 자각을 담은 감정의 전달에 주력해야 한다. 타인이 이 감정을 경험해 같은 심경에 감염되고 결합을 느낄 때, 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예술이다. 따라서 감염성은 의심할 바 없이 예술의 특징일 뿐 아니라, 그 정도는 예술의 가치를 재는 유일한 척도이다.</p> <p>을: 미(美)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게 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div>

- ① A: 예술은 예술 그 자체만을 위해 존재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② B: 예술 작품은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 ③ B: 예술 작품에 대해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필요하다.
- ④ C: 예술은 오로지 미(美)의 영역에만 관계되므로 선과는 무관하다.
- ⑤ C: 예술은 독립적 영역이 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한다.



182)[21 ebs 수특] 골라.

(가)	<p>출렁함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장 잘 지은 것들을 아이들이 듣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제해야 한다. 시인들을 비롯한 모든 장인들은 좋은 성품의 상을 작품 속에 새겨 놓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작품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릴 적부터 아름다운 작품들을 대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것과 친해지고 닮도록 해야 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p>출렁한 예술가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요?</p>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p> </div> </div> </div>

【 보기 】

- ㄱ. 이데아가 아닌 현상의 미(美)를 모방해야 합니다.
- ㄴ.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의 품성을 고양해야 합니다.
- ㄷ. 선(善)이 아닌 미(美)를 작품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 ㄹ. 작품에 나쁜 리듬과 부조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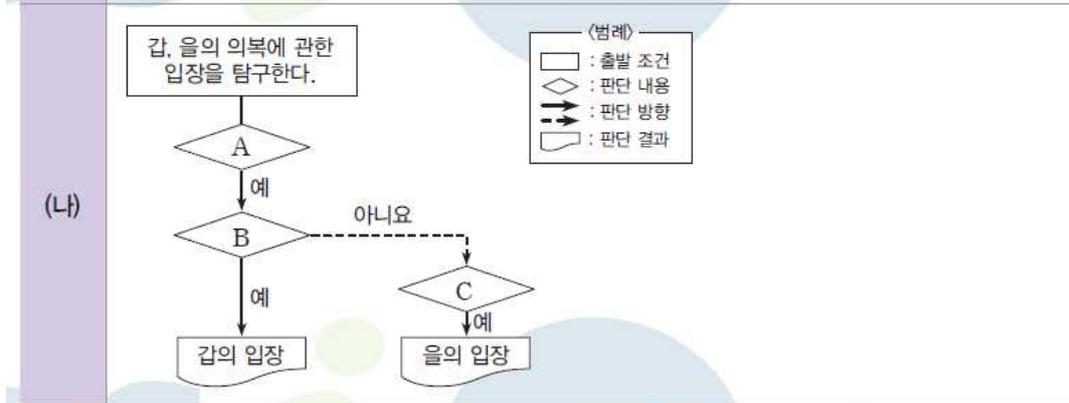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의식주와 사회 윤리(수특 13강)

zola 문제

183)[17 ebs 수특]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옷과 장식품 같은 것들에 대한 사치와 허영은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그들을 먹여살린다. 따라서 사생과 허풍의 바보같은 거만함은 먹고 입는 것에 번덕을 부리게 하는 우스꽝스러운 악덕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덕이 된다.  
 을: 유토피아에서는 모두가 같은 종류의 옷을 입고, 옷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유토피아인들은 의복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절약하고, 작업복은 가족으로 험령하게 만들어 7년을 입는다. 의복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탐욕을 악덕으로 여기고 검소와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

ㄱ. A: 일상생활에서 의복의 필요와 가치를 인정하는가?  
 ㄴ. B: 자존심과 허영심의 충족을 위한 의복 소비도 인정하는가?  
 ㄷ. B: 동물에게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의복 소비를 지양해야 하는가?  
 ㄹ. C: 사회적 지위와 계층을 상징하는 수단으로서 의복 소비를 권장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84)[20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건축함은 그 자체가 이미 거주함이다. 건축함은 건물을 세우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죽을 자로서 매일 매일 거주한다는 그 본질적 의미를 깨달아 실존적 삶 전체를 돌보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건축함인 것이다. 죽을 자로서 인간은 다양한 건축함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세계 안에 있음의 의미를 만들어간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계 내에 거주한다는 뜻은 다양한 건축함의 행위와 이를 더욱 더 가치 있고 본래적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생각함이 늘 함께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① 거주함은 인간의 사유함과 분리될 수 없는가?  
 ② 거주함은 건축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가?  
 ③ 건축함은 근원적으로 거주함의 의미를 지니는가?  
 ④ 거주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가?  
 ⑤ 거주함으로써 인간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가?

185)[19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이 니가 되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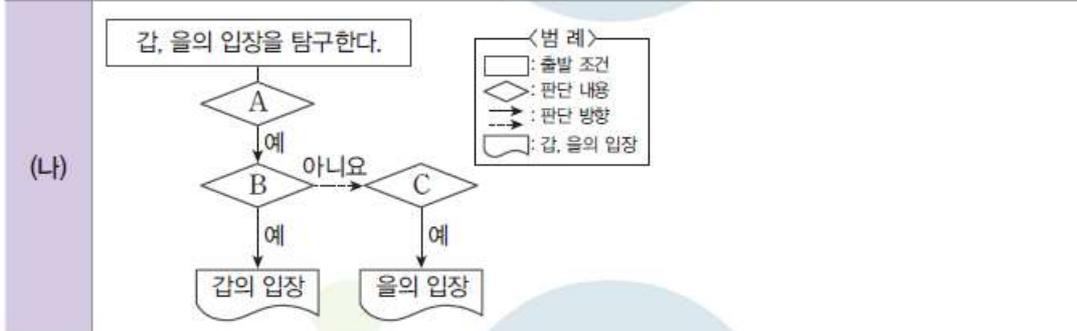
땅을 구원하는 가운데, 하늘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신적인 것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죽을 자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거주함은 이 사방의 본질을 사물들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사방을 소중히 보살핀다. 그러나 사물들은 그것들 자신이 사물들로서 그것들의 본질 안에 초연히 내맡겨질 때에만 사방을 간직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죽을 자들이 성장하는 사물들을 돌보고 보호함으로써, 또한 성장하지 않는 사물들을 제대로 고유하게 건립함으로써 일어난다. ... (중략) ... 거주함의 본래적인 곤경은 주택이 모자란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주함의 본래적 곤경은 죽을 자들이 거주함의 본질을 항상 다시금 구한다는 사실에, 즉 죽을 자들이 거주함을 비로소 배워야만 한다는 사실에 있다. 인간이 거주함의 본래적인 곤경을 아직도 바로 그 곤경으로서 숙고하지 않는다는 점에 인간의 고향 상실이 성립하고 있다면 어찌될 것인가? 고향 상실은 올바르게 숙고되고, 훌륭하게 간직된다면, 죽을 자들을 거주함 안으로 부르는 유일한 말 건넬이다.

입장	너
거주함은 사물의 성장을 돌보고 보살핌을 의미한다.	
거주함의 본래적 곤경은 집의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사방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하는 존재이다.	
현대인들은 본래적인 거주 공간으로서의 고향을 상실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186)[19 ebs 수특] 골라.

(가) **갑:** 올바른 소비는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소비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얻는 만족과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올바른 소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어진 예산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비 지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역시 올바른 소비 방법의 한 예이다.

**을:** 올바른 소비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상품을 구입할 때 단지 그 상품 하나의 가격이나 품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장비구니 안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과정,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함으로써 생태계나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소비이다.



- 1 보기
- ㄱ. A: 과시 소비와 모방 소비를 삼가는 것은 올바른 소비인가?
  - ㄴ. B: 올바른 소비는 경제적 합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
  - ㄷ. C: 올바른 소비는 사회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가?
  - ㄹ. C: 올바른 소비는 항상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는 것인가?





190)[18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각 문화가 지니는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그 문화가 윤리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즉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하겠지만, 윤리적 평가를 내릴 때에는 상대적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힌두 공동체에서 행해지던,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따라서 죽어야 하는 관습인 사티(sati)와 같은 비인간적인 관습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을: 윤리도 문화의 일부이므로 문화가 상대적이면 윤리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문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적·역사적 맥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각기 고유한 내적 논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문화에서 나타난 행동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주체가 속한 특정 문화 체계의 잣대에 의거해서만 평가되어야 합니다.

갑: 나는 당신의 견해가 고 생각합니다.

- ①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려움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각국마다 다양한 윤리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음을 경시하고 있다
- ③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국의 문화를 평가해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④ 문화적 특수성에 기초한 새로운 윤리적 기준이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보편 윤리를 기준으로 문화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191)[15 ebs 수특] (가), (나)의 관점에서 <사례>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 내릴 적절한 평가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가) 커다랗고 동그란 샐러드 그릇 안에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각자 고유한 맛을 지키면서도 하나의 샐러드가 되듯이 여러 민족의 문화가 동등함과 다양성을 지키면서 공존해야 합니다.

(나) 각 집단의 문화를 한데 모아 용광로에 넣어 녹이듯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가 갈등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 례>

우리나라도 국제 결혼과 이주 노동자들의 증가로 다문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 20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센터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 주류 문화에의 동화를 위해 해당 여성들에 대한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 예절 교실, 한국어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 보 기 >

ㄱ. (가) : 다원주의를 전제로 하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 수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

ㄴ. (가) : 타자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 타자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일이다.

ㄷ. (나) :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의 대등한 강조로 소모적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ㄹ. (나) : 사회 구성원 다수가 따르는 문화를 제공하지 않아 윤리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192)[18 ebs 수특]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소수 집단의 언어, 문화, 종교 등의 문화적 차이가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류 문화와의 동질화를 추구해야 한다.

을: 다양한 문화가 지니는 각기 다른 특성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다양한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 통합을 유지해야 한다.

<보기>

ㄱ. 갑은 소수 집단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강조한다.

ㄴ. 을은 다양한 문화의 이질성 보존을 지향한다.

ㄷ. 갑은 동화주의를, 을은 다문화주의를 추구한다.

ㄹ. 갑, 을은 모두 비주류 문화의 보존을 강조한다.

193)[20 ebs 수특]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소수 집단의 문화와 그 구성원들의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려는 다문화 정책은 다인종 사회에서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 국가로 통합되는 정의로운 길을 보장한다. 이러한 정책은 소수 민족, 원주민, 이민자 등과 같은 여러 소수 집단의 존재에 대해 섬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접근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수 집단 스스로 문화적 고립에서 탈피해 자발적으로 국가 통합을 돕도록 할 수 있다.</p> <p>을: 소수 집단의 문화와 그 구성원들의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려는 다문화 정책은 그 대상이 되는 특정 집단에게 국가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제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집단 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기회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도모하는 재분배의 체계에 혼동을 가져와 사회 통합의 기반인 민주적 연대감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p>
(나)	<p>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re> graph TD     Start[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gt; A{A}     A -- 아니오 --&gt; C{C}     A -- 예 --&gt; B{B}     B -- 예 --&gt; G[갑의 입장]     C -- 예 --&gt; E[을의 입장]     </pre> <p>&lt;범례&gt;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갑, 을의 입장</p>

- ① A: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가?
- ② B: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위배되는가?
- ③ B: 소수 집단 구성원들의 권리 인정이 사회 통합을 위한 협력을 방해하는가?
- ④ C: 모든 사람의 평등한 자유권의 보장보다 문화적 차이의 인정이 더 중요한가?
- ⑤ C: 소수 집단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훼손할 수 있는가?

194)[21 ebs 수특] 어떻게 푸는지 알지? 적절한 비판을 고르면 됨!

(가) 갑: 국가가 주된 역할을 하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여 맛을 내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  
 을: 이주민은 자신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기존의 지배적 가치관과 문화를 수용하여 이에 적응해야 한다.  
 병: 문화 집단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등한 입장으로 공존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나)

- ① A, C: 문화 단일성을 전제로 문화 통합을 이루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 F: 다양한 문화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존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B, D: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는 위계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④ B, E: 비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⑤ D, F: 다양한 문화가 동등한 지위로 공존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195)[21 ebs 수특] 고르셈!

갑: 모든 문화는 절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상대적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 날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식습관이나 문화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음식의 보관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추운 지방에서는 날고기를 먹는데 위생 문제가 별로 없으며, 추운 날씨로 채소·과일 경작이 곤란하며 딸감도 얻기 힘든 상황에서는 날고기를 먹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손쉬운 비타민 섭취법이기 때문이다.

을: 모든 문화를 바라볼 때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적용하여 문제가 되는 점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식인 풍습, 여성·아동 학대, 명예 살인, 인신 공양, 인신매매, 노예제·카스트 등의 신분 제도, 여성 할례 등과 같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문화적 관습 등을 상대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 ① 갑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가 우열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 ② 을은 각 문화의 도덕적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보편적 기준은 없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화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자문화의 우월성을 근거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데 반대한다.
- ⑤ 갑, 을은 각 문화가 지닌 고유성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교(수특 13강)

196)[16 ebs 수특]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세계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이다. 인간은 신의 창조물 가운데 한 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인간은 신성성을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하며, 그의 생명은 우주적 생명과 일치하게 된다.

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창조했다. 유아기의 무력감과 압도적인 운명의 힘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그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동경에서 종교적 욕구가 유래한 것이다.

- ① 갑: 신성함은 인간을 포함한 세계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 ② 갑: 신은 불완전한 인간이 심리적 필요에 따라 창조한 것이다.
- ③ 을: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므로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이다.
- ④ 을: 인간은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 실존하는 신을 인식하게 된다.
- ⑤ 갑, 을: 종교는 인간의 소망을 성취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197)[17 ebs 수특, 나름 고난도?]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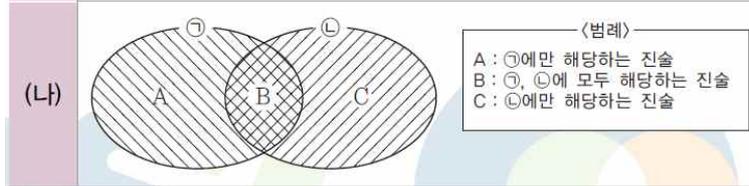
갑: 신은 선하며 완전한 지혜를 갖춘 존재입니다. 따라서 신이 우리에게 수많은 행위 중 어떤 행위만을 명령하는 것은 그 행위가 옳기 때문입니다. 신은 지혜롭기 때문에 정직함이 속임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을: 아닙니다. 올바른 행위는 사회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옳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옳은 행위가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신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신의 명령이라는 점을 제쳐 두면 정직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 ① 신의 명령과 윤리가 무관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② 신의 권위가 인간의 권위보다 우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신이 명령한 모든 행위가 도덕적 행위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신의 의지와 별개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신은 지혜를 활용해 옳은 행위만을 명령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198)[16 ebs 수특] (가)의 ㉠, ㉡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됨!

(가) ㉠ - 인간의 보편적 이성이나 양심에 기초한 윤리 규범으로, 자율적인 도덕 생활을 강조한다.  
 ㉡ - 종교의 교리와 신념을 바탕으로 한 윤리 규범으로, 같은 종교 집단 내에서 강제력이 높다.



< 보기 >

- ㄱ. A : 인간에게 올바른 행위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 ㄴ. B :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관심을 가진다.
- ㄷ. B : 특정한 종교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ㄹ. C : 윤리 규범의 근거를 주로 경전의 내용에서 찾는다.

199)[21 ebs 수특]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셈!

모든 것이 성성(聖性)을 부분적으로라도 구현할 수 있다면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모순은 사실상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나 다 성현(聖顯)이 될 수 있고, 역사의 어떤 시점과 공간에서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은 없으리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성현을 다 가졌던 종교와 인종 또한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적 구조에는 성스러운 것과 나란히 세속적인 존재와 사물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 ① 성과 속을 단절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가?
- ② 성스러움을 세속을 초월한 세계에서 실현해야 하는가?
- ③ 인간은 체험을 통해 성스러움을 만날 수 있는 존재인가?
- ④ 신에 의해 창조된 세계는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 ⑤ 종교는 근원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성스러움과의 만남인가?

200)[19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정상인을 골라!

성스러움이 현현(顯現)함으로써 사물은 전혀 다른 것이 되는데, 그러나 그 후에도 의연히 그 사물임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후에도 우주적인 환경 세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돌도 의연히 한 개의 돌이다. 즉 길으로 볼 때는 그 돌을 다른 일반적인 돌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돌이 성스러운 것으로서 계시되는 사람들에게는 눈앞의 돌의 현존이 초자연적 실재로 변한다. 바꿔 말하면 종교적 경험을 가진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그때 우주는 전체가 성현(聖顯)이 되는 것이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신은 이 세계 그 자체이자 자연이다.	v			v	v
일상적인 삶에서 언제든지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		v		v	v
성스러움이 계시된 자연물은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자연물이 아니다.	v		v		v
인간은 본래 종교적 존재이며, 이 세계는 성(聖)과 속(俗)이 공존한다.		v	v	v	

# 6단원

##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 윤리(수특 14강)

201)[20 ebs 수특, 주관식]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 상황에서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님들은 코끼리를 설명할 때 제각기 탄소리를 한다. 어느 장님도 코끼리의 진면목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장님도 코끼리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불성(佛性)을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어느 입장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모든 입장을 떠나서도 안 된다.</li> <li>• 불교 경전의 부분을 통합하여 온갖 흐름의 한 맛[一味]으로 돌아가게 하고, 부처의 뜻이 지극히 공정함[至公]을 전개하여 백가(百家)의 못 주장을 화회(和會)시킨다.</li> </ul>
(나)	<p>오늘날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다 보니 다양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경우 각각 자신의 관점과 주장은 옳고 타자의 관점과 주장은 틀렸다고 말한다. 때로는 상대에 대하여 부분적인 긍정을 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p>

보기	
ㄱ.	자신이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ㄴ.	서로 다른 의견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ㄷ.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이해나 설명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ㄹ.	부분에 대한 지식은 오류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합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202)[14 ebs 수특, 윤사 활용, 주관식] 다음은 어떤 사상가의 기본 관점과 주장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

기본관점	같은 속에 이미 다름이 있고, 다름 속에 이미 같음이 투입되어 있기에 독립적 실체는 없고 거울처럼 각자가 다른 것을 반조(返照)할 뿐이다.
주장	더러움과 깨끗함의 모든 법은 그 본성에서 둘[二]이 아니고, 진실됨과 망령됨의 이문(二門)도 다를 수가 없다. 고로 일(一)이라고 한다. 일이라 함은 이처(二處)가 없고, 모든 법의 진실이 있는 것이며, 허공과 같지 않고 그 본성이 스스로 신통한 이해력을 지니고 있기에 마음[心]이라 이름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찌 하나[一]가 있을 수 있는가? 일(一)도 없는데 누가 마음이라고 말하는가?
분석	(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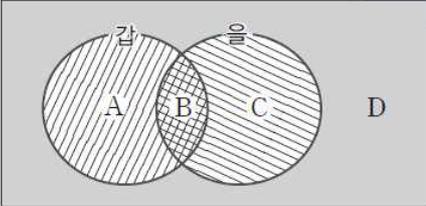
- ㄱ. 서로 다른 것을 극복하여 하나로 동질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 ㄴ. 모든 경론(經論)의 근원인 일심(一心)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 ㄷ. 화쟁(和諍)을 위해 다름과 같음을 대립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 ㄹ. 참과 거짓과 같은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할 경지를 주장하고 있다.

203)[16-7교-3+18-7교-6+15 ebs 수특 윤사, 주관식] 밑줄 친 '그'의 사상적 입장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그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암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네 가지 유형의 타당성 요구를 전제한다. 첫째는 화자가 발언한 것이 이해 가능한가라는 '이해 가능성'의 요구인데, 이것은 나머지 세 가지 타당성 요구의 기본 전제이다. 둘째는 그 발언을 구성하는 명제들의 내용이 참인가라는 진술의 '진리성' 요구이고, 셋째는 화자의 규범적 발언이 승인된 규범적 맥락 속에서 정당인가라는 언어 행위의 '정당성'의 요구이다. 넷째는 화자의 주관적 표현이 진실인가라는 표현의 '진실성'의 요구이다.

- ① 다원화 시대에 보편타당한 규범의 확립은 가능하지 않다.
- ② 행위 규범은 합리적인 합의에 의해서만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 ③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특성을 모른다고 가정된다.
- ④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예상되는 규범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의사소통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표현하는 주장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 ⑥ 개인적인 욕구, 희망 사항을 제외하고 발언해야 한다.
- ⑦ 공론장에서는 타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204)[20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p>갑: 나는 논증 규칙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보편화의 원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적 표현을 제안 하였다.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들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p> <p>을: 나의 준칙이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나 또한 바랄 수 있도록 오직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약속으로 어려움을 빠져나오라'는 나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내가 기꺼이 용납할 것인가? 나는 비록 거짓말을 하려고 할 수는 있어도 '거짓말하라'가 보편적 법칙이 되게 하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p>D: 갑, 을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p> </div> </div>

【 보기 】

- ㄱ. A: 개인의 도덕 판단만으로는 타당한 규범의 성립이 어려우므로 담론이 필요하다.
- ㄴ. B: 대화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한 규범은 모두 보편타당하다.
- ㄷ. C: 규범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과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다.
- ㄹ. D: 모든 타당한 도덕규범은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보편화될 수 있다.



국제관계 이론(수특 15강)

207)[16-10교-2, 주관식]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국제 정치는 힘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다. 전쟁은 자국의 안보와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국제적 수준에서는 도덕성이 적용될 수 없다.  
 을: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전쟁의 목적은 침략 행위나 불법 행위를 저지함으로써 평화를 수호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보기>

- ㄱ. 갑은 세력균형을 통해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다고 본다.
- ㄴ. 을은 전쟁의 목적이 전쟁의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본다.
- ㄷ. 을은 갑과 달리 방어 차원의 전쟁을 정당하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국익 보호가 전쟁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8)[15 ebs 수특] 골라!

(가)	<p>갑: 국제 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은 항상 일차적 목표이다. 국제 정치에 있어 정치적 현상은 다음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는 것이다.</p> <p>을: 평화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를 규제하는 국제적 제도의 창출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안보는 세력 균형이 아니라 힘을 가진 국제기구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font-size: small;">(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갑, 을의 입장</p> <pre>                 graph TD                 Start[국제 정치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gt; A{A}                 A -- 예 --&gt; Out1[갑의 입장]                 A -- 아니요 --&gt; B{B}                 B -- 예 --&gt; Out2[을의 입장]                 </pre> </div>

- ① A : 국제 사회에서의 평화 실현은 불가능한가?
- ② A : 국제 사회는 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 ③ A : 국가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가?
- ④ B :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
- ⑤ B : 국제 평화를 위해 모든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가?

209)[15-7교-5] 갑, 을이 지지하는 국제 관계 이론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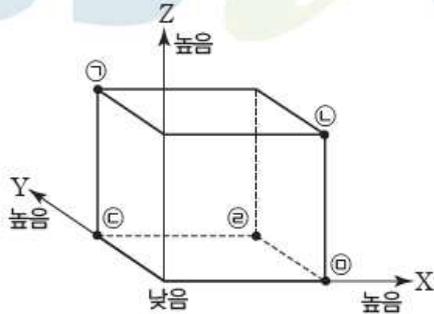
갑: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이러한 인간으로 구성된 국가도 이기적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하고 상호 협력하는 존재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이성적 대화를 통해 국제 평화 실현이 가능합니다.

- ① 갑: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국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 ② 갑: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 ③ 을: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 간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 ④ 을: 국가 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국제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
- ⑤ 갑, 을: 인류 평화를 위해 단일한 세계 정부의 수립이 필요하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국제 정치는 국가 간의 지속적인 권력 투쟁과 갈등의 연속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정치는 권력과 강압으로 구성된 인간 행위의 영역이므로, 국가는 자기 이익과 생존을 추구한다. 또한 국가는 무정부 상태인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므로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닌다.

을: 국제 정치는 국가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정치 활동에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다. 세계 평화는 이와 같은 상호 협력과 제도적 보장을 통해 가능하며, 국가들은 이러한 규범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



- X: 윤리를 국가들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정도
- Y: 힘의 균형을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 Z: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정도

국제평화(수특 15강)

211)[20 ebs 수특, 주관식]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애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것이다. 환대(歡待)란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그가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이 영속적인 체류권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방문의 권리요, 교제의 권리이다. 사람들은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함에 의해 그런 권리를 갖는다.

<사례>

○○ 국가에 잠시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자연환경, 풍습, 제도 등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례가 전혀 없던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보기 】

ㄱ.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맞추어 외국인을 대우해야 한다.  
 ㄴ. 박애주의적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어야 한다.  
 ㄷ. 외국인은 영구 거주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ㄹ. 외국인은 다른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할 권리가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212)[15 ebs 수특 활용] 다음은 어느 서양 사상가가 세계 평화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있는 대로 골라.(1개~모두까지)

예비조항(일부)	* 상비군은 폐지하라. 말 좀 들어라! * 어떠한 독립 국가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확정조항(일부)	* 모든 국가의 시민적 체계는 공화정이라야 한다네~ *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여야 한다네~ *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네~

- ① 지혜와 덕을 갖춘 왕이 다스리는 전제정을 지향해야 하는가?
- ②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가?
- ③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평화 실현이 가능한가?
- ④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⑤ 영구적인 세계 평화 달성은 불가능한가?
- ⑥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213)[18 ebs 수특]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다음 사상가가 주장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대해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구조적이고 적극적 평화는 억압을 자유로, 착취를 평등으로 대신하며, 그리고 강요 대신 대화를, 분리 대신 통합을, 소외 대신 참여를 강조한다.

㉡ 학생 답안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비교하면, 소극적 평화는 ㉠ 전쟁, 테러, 폭행과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 빈곤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에 ㉢ 적극적 평화는 문화적·구조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며, ㉣ 차별에서 벗어나 인권을 보장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한편 ㉡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는 모두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넓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214)[20 ebs 수특 활용,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있는 대로 골라.

• 직접적 폭력은 그 자체로 보복과 공격적인 소요를 일으킨다. 구조적 폭력은 그 자체로 반복되거나 완성된 폭력을 낳고, 문화적 폭력 역시 반복과 완성을 통해 그 자체를 형성한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형성하는데,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인 폭력으로 향하는 인과적 흐름은 확인이 가능하다. 문화는 우리를 착취나 억압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도록, 또는 그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도록 전도하고 가르치고 혼계하며 충동질하고 무디게 한다.

- ① 인간 존엄성의 보장을 위해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② 세계의 모든 전쟁이 종식됨과 동시에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 ③ 정치·경제 분야에 존재하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④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 ⑤ 인간 안보를 확장한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215)[21 ebs 수특] 골라!

갑: 모든 정치가들은 국가 이익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런 철칙은 국가들의 관계에 적용된다. 국제 관계는 무한한 욕심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른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국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약소국들은 강대국과 동맹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으려 한다.

을: 가장 높은 수준의 입법적이고 도덕적인 힘은 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성은 절대적으로 권리의 차원에서 전쟁을 배격하고 의무의 차원에서 평화를 구축하게 한다. 이것은 국가 간의 합의 혹은 협정이 국가 간의 연합 혹은 연맹을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맹은 구성 국가들의 주권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영속적인 평화 상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갑은 국가 간 평화가 힘의 사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국가 간의 평화 조약만으로 영구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국제 사회에서 평화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관계에도 보편적 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216)[18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영구 평화를 위한 제3의 확정 조항은,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이다. 앞 조항에서처럼 이곳에서의 문제도 박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리에 관한 것이다. 우호란 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은 권리를 뜻한다.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보기>

- ㄱ.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제이어야 한다.
- ㄴ. 개별 국가는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의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ㄷ.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 ㄹ. 전쟁 방지를 위해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소규모의 상비군만 유지해야 한다.

217)[21 ebs 수특]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이 있다. 비참한 것도 고통의 한 형태이므로 어딘가에 폭력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간접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직접적 폭력이 우리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력이라면 간접적 폭력은 사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난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집단인 사회 간에, 사회들의 집단인 동맹이나 지역 간에 발생하는,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성격 구조로부터 생기는 간접적이고 정신적인 또는 의도되지 않은 폭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 ①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 소멸해야 하는가?
- ② 개인이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평화가 달성되어야 하는가?
- ③ 폭력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법적 적합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가?
- ④ 간접적 폭력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경우에도 사용되지 말아야 하는가?
- ⑤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해야 하는가?

218)[18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조약이란 모든 적대 행위의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아닌 적대 행위의 한낱 일시적 중지인 휴전에 불과한 것이 되며, 따라서 '영구적'이란 단어를 덧붙이는 것조차 기만적인 수식어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 ① 평화란 모든 전쟁의 휴전 상태를 의미하는가?
- ② 평화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의 확보가 중요한가?
- ③ 국가 간의 세력 균형만으로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는가?
- ④ 평화를 위해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는가?
- ⑤ 평화적 방법으로 어떠한 독립 국가를 다른 국가가 매입하는 것은 가능한가?

219)[19 ebs 수특, 주관식] 골라!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국가 안보 개념의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간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 및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인간 안보 개념의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다시 '직접적이고 적극적 평화', '구조적이고 적극적 평화', 그리고 '문화적이고 적극적 평화'로 구분됩니다. 직접적이고 적극적 평화는 나와 타자 간에 갖는 직접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구조적이고 적극적 평화는 공동체적이고 간접적인 평화입니다. 문화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종교, 법, 사상 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나아가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성취해야 합니다.



【 보기 】

- ㄱ. 평화는 비폭력적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한다.
- ㄴ. 억압과 착취의 사회 구조를 자유와 평등의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 ㄷ. 의도되지 않은 사회적 분열과 소외를 폭력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 ㄹ.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세계화 + 해외원조(수특 15강)

220)[20 ebs 수특]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다른 조건이 모두 다 같다면, 국가가 자국민을 돌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된 나머지, 어떤 한 나라에서 부유한 한 쌍이 극장에 가느라 쓰는 돈이 다른 나라의 수많은 쌍들이 한 해 동안 먹고사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다면, 사정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달러당 최대 효용을 얻는 방법을 추구하는 효율성 개념을 가지고 추론하는 것은 우리 동포에 대해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효용의 크기로 볼 때 우리가 해외에 베풀 수 있는 선행의 양이 자국민을 돌볼 의무를 훨씬 압도한다고 주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유일한 또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들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은 추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그러한 원칙들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가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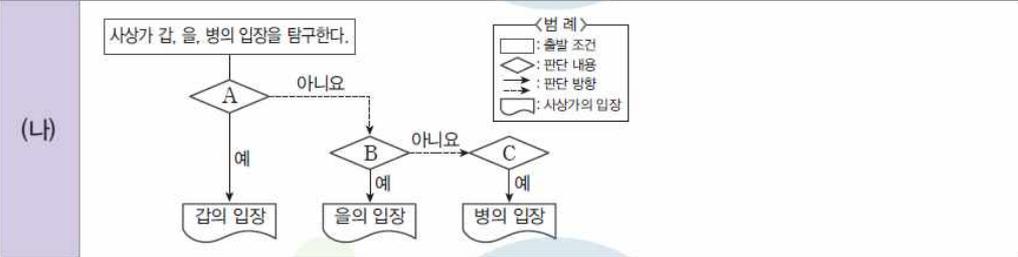
- ① 원조는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원조의 목적이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③ 상대적으로 빈곤한 모든 국가에 지속적인 원조가 필요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빈곤국에서 기아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개인들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221)[20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갑: 최소 국가는 정당화되며,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이 말의 주목할 만한 함축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안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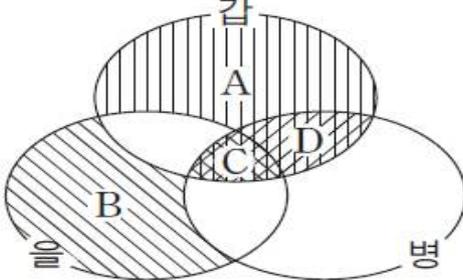
을: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하는 데 손쉬운 비결은 없다. 그것에 자금을 투여하는 것은 대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만민법에 의해서 배제된다.

병: 자신에게 얼마만큼 포기하도록 강요하느냐는, 우리가 막을 빈곤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미를 지닌 것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다. 공리주의자에게는 유행에 맞는 옷, 값비싼 저녁, 더 큰 집, 화려한 자동차 등은 극단적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 보기
- ㄱ. A: 원조를 의무가 아니라 선의를 베푸는 자선 행위로 보는가?
  - ㄴ. B: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빈곤국들을 원조의 대상으로 보는가?
  - ㄷ. B: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조를 해야 하는가?
  - ㄹ. C: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를 하는 것은 도덕적인가?

222)[17 ebs 수특 활용, 주관식] 골라!

(가)	<p>갑: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그 일에 상응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p> <p>을: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며, 소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나아가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남을 돕는 일에도 적용된다.</p> <p>병: 타인의 곤경에 무관심한 태도는 보편적 윤리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다. 원조의 의무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비롯되며, 그것이 이방인일지라도 돕는 것이 의무이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div>

<보기>

- ㄱ. A: 원조는 이익의 동등한 고려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 ㄴ. B: 원조는 자원을 국간 간 재분배하는 의무를 실천 것이다.
- ㄷ. C: 원조는 결과에 상관없이 선의(善意)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 ㄹ. D: 원조는 인도주의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223)[19 ebs 수특]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는?

갑: 사치품과 부질없는 것에 낭비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양식과 깨끗한 식수, 비바람을 피할 보금자리,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며,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을: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조의 목표를 규정한다. 목표가 성취된 이후에는 심지어 현재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 ① 원조를 강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를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다.
- ③ 원조의 목적을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에 두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 ④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클 경우에만 원조해야 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⑤ 빈곤한 국가에 사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인들을 직접 돕는 일을 외면할 수 있다.

224)[21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가) 갑: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을: 소유물을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이전받았다면 우리는 그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며,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달려 있다.  
 병: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종족이나 국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도울 때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나)

- 보기
- ㄱ. A: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의무임을 간과한다.
  - ㄴ. F: 해외 원조의 목적이 국가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함임을 간과한다.
  - ㄷ. B, D: 해외 원조는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한다.
  - ㄹ. C, E: 해외 원조는 세계 시민주의 입장에서 개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임을 간과한다.

225)[21 ebs 수특] 유일한 낭겐[人間]을 골라!

사치품과 부질없는 것에 낭비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윤리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어 갖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년 소득 중 일부인 그다지 많지 않은 금액만 우리가 기부한다면, 세계가 전 지구적 빈곤을 제거하는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원조의 대상에서 민주적 국가의 빈민은 제외되어야 한다.	✓	✓		✓	
원조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행되어야 한다.	✓		✓		✓
원조는 상호 경제력을 고려하지 말고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		✓	✓
원조를 이행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익과 자국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	✓

226)[20 ebs 수특]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세계화로 인해 문화 분야도 다른 분야처럼 시장 논리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과 국가는 았다튀 신기술과 경제의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공급되는 문화의 양과 질을 개선할 것이다. 예컨대 주제별로 수많은 채널을 가진 디지털 TV가 등장해 '미디어 선택 가능성의 폭발적 증가'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문화 상품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시청자의 요구와 경향을 모두 만족시킬 것이다.

을: 세계화는 문화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화로 야기된 경쟁 상태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질성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대 다수가 선호하는 것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자는 특히 서로 상대방의 문화 상품을 모방하면서 사회의 어느 계층이든, 어느 국가에서든 통용될 만한 상품들, 즉 유사한 TV용 드라마, 연속극, 추리극, 상업용 음악 등의 제작에 매진할 것이다.

- ① 갑은 세계화가 문화의 동질화를, 을은 문화의 다양화를 초래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을과 달리 세계화로 문화 상품을 모방하는 현상이 증가한다고 본다.
- ③ 을은 갑과 달리 세계화로 양질의 문화 상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본다.
- ④ 갑, 을은 세계화가 생산자들 간의 자유 경쟁을 심화시킨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세계화로 대중이 차별화된 문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227)[21 ebs 수특, 주관식]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세계와 나라와 일터와 나의 삶은 온통 연결되어 있다. 어떤 나라의 경제 정책은 전 세계 경기에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바꾸고 또 나의 삶도 바꾼다.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 기술 등 모든 분야가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는 국가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면서 삶을 균일화할 뿐만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 최근 C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와 공포를 발생시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동시에 성취하고 누리려는 세계적인 추세가 만들어 낸 부작용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계화가 인류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문화를 다양하게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들의 견해가 ㉠고 생각한다.

【 보기 】

- ㄱ. 세계화로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되었음을 간과한다
- ㄴ. 세계화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ㄷ. 세계화로 국가 간 경제적 형평성이 높아졌음을 간과한다
- ㄹ. 세계화가 인간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 zola amazing 정답!!

1) 가, 나, 르

2) ①

3) ③

4) 나, 드

5) ④ 

10%	4%	2%	79%	5%
-----	----	----	-----	----

6) ⑤

7) ③

8) 3번-①, 4번-②

9) ④

10) ⑤

11) ④

12) 나, 드

13) ④

14) 가, 르

☞ Zola Guide 제시문이 '유학'이 아니라 '도가'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과 독해력이 필요함. ㄱ은 동양 사상이면 동의할 내용임. ㄹ은 도가에만 해당함.

15) ③

16) 나, 드

17) ③

☞ Zola Guide 바나나 제거 특강(무료) 1강 1번임!!!! 틀린 존재들은 바나나 제거 특강 다시 자기 것으로 '습관' 화시켜야 함!

18) ⑤

19) ①

20) 가, 나, 르

21) 을

22) ③

23) ⑤

24) 나, 드

25) ④

26) ③

27) 가, 드

☞ Zola Guide 'ㄹ' 고른 바나나가 없기를 기도함....

28) ⑤

29) ⑤

30) 나, 르

31) 나, 르

32) ⑤

33) ⑤

☞ Zola Guide 바나나 제거 특강(무료)에서 다른 내용임.

34) ①, ③, ④, ⑤

35) ⑤

36) ④

37) ④

38) ④

39) ⑤

☞ Zola Guide 이런 문제는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님.

40) ②

☞ Zola Guide 지식 문제 아님. but 충분히 수능에서 출제될만한 내용임.

41) ④

☞ Zola Guide 가로열쇠 A: 토의(검'토'하고 협'의'함) B: 여론

42) ⑤ 

4%	10%	3%	4%	79%
----	-----	----	----	-----

☞ Zola Guide 국어로도 풀리는 문제임. 갑 사상가가 누군지 몰라도 공리주의라는 개념으로도 풀림. 그런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서 의아함. but!!!! 바나나가 되기 싫으면 갑 사상가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지식을 장착해 두길 바람! 갑 사상가는 밀임!!

43) ③

44) ⑤

45) ②

46) 다, 르

47) 병

48) ①

49) ③

50) 5

51) 3

52) 4

53) 다, 르

54) ②

55) ③

56) ②, ③, ④, ⑤, ⑥ ☞ Zola Guide 주의할 문제임!

57) ②, 자료 분석형임. good~

58) 3

59) 2

60) 2

61) 다, 르

62) ①, ②, ③, ⑥, ⑦, ⑧, ⑩

63) ④

64) 가, 르

65) 나, 다

☞ Zola Guide 가. 천륜과 인륜 구분할 줄 알아야 함!

66) ②

67) 나, 다, 르

68) ③, ⑤

☞ Zola Guide '제시문'과 관련한 효를 선택하는 문항임. 효에 대한 지식 문항이 아님! 님 뇌피셜로 문제 보지 말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푸셈!!

69) 나, 다, 르

70) 다, 르

71) 가, 나, 르

72) 다, 르

73) 병

74) 가, 다

75) 가, 다

☞ Zola Guide 갑 사상가는 누군지 몰라도 됨. 독해로 풀면 됨(중세 기독교 사상가, 유세비우스)

76) 4

☞ Zola Guide 갑은 순자, 을은 플라톤

77) 3

☞ Zola Guide 갑은 맹자, 을은 순자

78) 1, 2, 3, 5

79) ㉠

80) 가, 나, 다

81) ③

82) 다, 르

☞ Zola Guide 사회적 자본을 주제로 한 기출 문제가 있으니 확인할 것. 바나나 강의에서 제시문-선지 간의 관계 유형 확인할 때 다루었던 문제임.

83) ③

84) 나, 르

85) 5

- 86) 나, 다
- 87) 1
- 88) 갑
- 89) 4
- 90) 나, 다
- 91) ④
- 92) ②
- 93) 정
- 94) ②

☞ Zola Guide 사상가 문제가 아니라 개념+독해 문제임.

- 95) ③
- 96) 2
- 97) 가, 나, 다
- 98) ⑤
- 99) 가, 다, 다
- 100) ③
- 101) 가, 나, 다
- 102) 정
- 103) ⑤
- 104) 가, 다
- 105) 다, 다
- 106) 가, 나
- 107) ③
- 108) 가, 다, 다
- 109) ②
- 110) 1
- 111) 4
- 112) 3
- 113) 3
- 114) 가, 다
- 115) 나, 다, 다
- 116) 가, 다
- 117) 5
- 118) 갑-다, 을-다
- 119) 2
- 120) 다, 다
- 121) ②
- 122) 1
- 123) 나, 다

☞ Zola Guide 고대 서양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행복=덕의 실현)임. 서양 윤리 이론(교재 번호 1-3)에서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124) 3
- 125) 정
- 126) 5
- 127) ③
- 128) ②
- 129) 나, 다
- 130) ①
- 131) 가, 다, 다
- 132) ②
- 133) ③
- 134) 가, 다, 다

☞ Zola Guide 사상가는 묵가. 나은 유가의 단계적·점진적·확장적 윤리임.

- 135) 1
- 136) ③
- 137) (3)√, (4)√
- 138) 나, 다

- 139) 가, 라  
 140) 2  
 141) 가, 나, 라  
 142) 가, 라  
 143) 1, 2, 3, 5 ☞ Zola Guide 교과서(교학사 및 천재교육)에 나오는 문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교과서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식화하였는지(암기 또는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144) 4  
 145) 1  
 146) 나, 다  
 147) 3  
 148) 나, 라  
 149) 다, 라  
 150) 가, 나  
 151) ③  
 152) ②  
 153) ①  
 154) 2  
 155) 다, 라  
 156) ⑤  
 157) ①, ④  
 158) ③, ④, ⑤  
 159) 5  
 160) 가, 나, 다  
 161) 가, 나, 라  
 162) 나, 다, 라  
 163) 가, 다  
 164) 다, 라  
 165) 4  
 166) 가, 다  
 167) 가, 나, 라, 다  
 168) 가, 다, 라  
 169) ②  
 170) ④  
 171) ①  
 ☞ Zola Guide 을 사상가를 테일러 혹은 생명 중심주의로 파악한 바나나들은 분명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 그래서 니가 열심히 공부하고도 바나나가 되는 거라고! 정신 차려야 함!!  
 172) ④  
 173) 5  
 174) 5  
 ☞ Zola Guide 바나나 문제임  
 175) 3  
 176) 가, 다  
 177) 가, 나 ☞ Zola Guide ebs에 처음 등장한 '칸트'의 예술관 문제임.  
 178) ⑤  
 179) ②  
 180) ④  
 181) ② ☞ Zola Guide '㉠'을 답으로 고르신 분은 개념이 꼬였든가 아니면 문장 독해(문장 바나나)가 안 되든가 임. 모르겠으면 질문을 꼭 할 것!  
 182) 4  
 183) 가, 나  
 184) ⑤  
 185)

입장	너
거주함은 사물의 성장을 돌보고 보살핌을 의미한다.	V
거주함의 본래적 곤경은 집의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사방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하는 존재이다.	V
현대인들은 본래적인 거주 공간으로서의 고향을 상실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V

- 186) 가, 나, 다  
 187) ⑤  
 188) ③  
 189) 순서대로 ④, ②  
 190) ⑤  
 191) 가, 나  
 192) 나, 다  
 193) ⑤  
 194) ⑤  
 195) ⑤  
 196) 1  
 197) ④ ☞ Zola Guide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제시문의 논거(논리) 파악이 중요한 문제임. 탐구로 보자면 나름 고난도 독해일 듯  
 198) 나, 라  
 199) ② ☞ Zola Guide 선지가 바나나임...ㅏㅏ  
 200) 을  
 201) 가, 나, 다  
 202) 나, 라  
 203) ②  
 204) 가, 다  
 205) 나, 다  
 206) ①  
 ☞ Zola Guide 틀리면 동양 윤리(Zola 강의 주제 번호 1-2)를 확인할 것  
 207) 가, 라  
 ☞ Zola Guide 같은 '모겐소'라는 현실주의 사상가임. 단, 외울 필요는 없음. 현실주의가 무엇인지 알면 됨. 그의 세력균형 알아둘 것. '현실주의-세력균형'이 한 세트임.  
 208) ②  
 209) ⑤  
 210) 나  
 211) 가, 다  
 212) 3, 4, 6  
 213) ㉠  
 214) ①, ③, ④  
 215) ①  
 216) 가, 다  
 217) ③  
 218) ④ ☞ Zola Guide 선지 ① 고른 B 바나나들, 제시문 다시 보라!  
 219) 가, 나, 라  
 220) ④  
 221) 가, 라  
 222) 가, 라  
 ☞ Zola Guide 같은 상어, 을은 노직이지만 병은 특정 사상가 아님. 의무론의 입장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임. 그래서 발문(문두)에서 '사상가'라고 하지 않았음. ebs 해설에도 병은 의무론으로 설명함  
 223) ⑤  
 224) 가, 다, 라  
 225) 병  
 226) ④  
 ☞ Zola Guide 독해임. but 세계화-지역화-글로벌리즘이 뭔지 정도는 알아둘 것(1학기 교재 176쪽 참고)  
 227) 가, 라